

정책연구 2009-5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이남철 전현중
조준모 김장희

머 리 말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개개인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한 국가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특정 경제 분야나 금융시스템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금융위기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체제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정부 등 각 주체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이해력 제고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는 국가적인 차원의 금융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지식 함양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민·관·연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6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남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동서대학교 전현중 교수,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와 KB국민은행의 김장희 박사가 공동연구진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과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 준 박성은 위촉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 문헌분석 · 5
2. 국내 실태 조사 · 6
3. 전문가 협의회 · 7
4. 정책 토론회 · 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8

제2장 이론적 분석

제1절 금융지식 함양에 대한 선행연구 · 9

제2절 금융교육의 정의와 역할 · 12

제3절 금융이해력(FQ) · 14

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 14
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교육 설문조사 · 20
3.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2009 소비자
금융이해력 조사(Consumer Financial Literacy Survey) · 21

제3장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제1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현황 분석 · 31

1. 공공기관 · 31
2.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 44
3. 사회기관 및 언론기관 · 52
4. 민간기관 · 56
5. 국내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시사점 · 60

제2절 국내 금융교육 실태조사 분석 · 61

1. 조사 대상자의 배경 정보 · 61
2. 금융지식 수준 · 64
3. 금융교육 현황 수준 · 67
4.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 74

제3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문제점 분석 · 81

1.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 · 81
2.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외 금융교육 문제점 · 89

제4장 주요국의 금융교육 체제 분석

제1절 주요국의 금융교육제도 및 운영현황 · 94

1. 미국 · 94
2. 캐나다 · 106
3. 영국 · 113
4. 프랑스 · 120
5.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126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29
7. 기타 주요국의 금융교육 · 131

제2절 우리나라 금융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에 주는 시사점 · 134

제5장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

제1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방안 · 137

1. 금융교육 정보(홍보) 전달 체계 확립 · 137
2. 금융교육 이해력 평가를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 138
3. 공공 금융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교육 · 138
4.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 139
5. 다양한 교육방법과 대상을 위한 금융교육 · 139
6. 금융교육 내용 강화 · 140
7. 지역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금융교육 패키지 제공 및 금융교육기관들의 파트너십 구축 · 140
8.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 강화 · 140

제2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 142

1. 금융교육체제의 의의 · 142
2. 현행 금융교육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143

제3절 새로운 금융교육지원 체제 모형 · 145

1.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 설치 및 운영 · 145
2. 금융교육 품질 국가 공인제 실시 · 146
3. 금융교육 강사 자격 국가인증제 도입 · 146
4.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통합 운영 체제 · 146

제6장 결론

SUMMARY · 155

iv 목차

- <부록 1> 경제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 159
- <부록 2>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고등학생/2009) · 171
- <부록 3>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초등학생/2008) · 181
- <부록 4>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중학생/2007) · 191
- <부록 5> 금융교육 실태 설문조사 · 201

참고문헌 · 211

〈표목차〉

- 〈표 1-1〉 금융교육 운영 및 지원체제 실태조사 대상 · 6

- 〈표 2-1〉 우리나라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 16
- 〈표 2-2〉 우리나라 중학생 금융이해력 · 17
- 〈표 2-3〉 우리나라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 19
- 〈표 2-4〉 설문문항 및 설문보기 · 22

- 〈표 3-1〉 경제교육협의회 참여기관 · 32
- 〈표 3-2〉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콘텐츠 현황 · 35
- 〈표 3-3〉 2009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 37
- 〈표 3-4〉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육 내용 · 38
- 〈표 3-5〉 소비자단체 상담직원을 위한 금융교육 · 39
- 〈표 3-6〉 농업기술센터의 농어촌 주민 대상 금융교육 · 40
- 〈표 3-7〉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연인원 · 41
- 〈표 3-8〉 최근 3년간 시범학교 교육실적 · 42
- 〈표 3-9〉 한경 경제교실 홈페이지 구성 · 55
- 〈표 3-10〉 ‘틴 매일경제’ 내용 및 활용방법 · 56
- 〈표 3-11〉 JA Korea 대상별 프로그램 내용 · 58
- 〈표 3-12〉 응답자 특성 · 63
- 〈표 3-13〉 금융이해력 수준 평가 · 64
- 〈표 3-14〉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 65
- 〈표 3-15〉 금융지식 경로 · 66
- 〈표 3-16〉 금융교육 효과 동의 여부 · 67
- 〈표 3-17〉 금융교육 인지 유무 · 68

〈표 3-18〉 금융교육 참여 유무	· 68
〈표 3-19〉 금융교육 참여 후 유용 정도	· 69
〈표 3-20〉 금융교육 불참여 이유	· 70
〈표 3-21〉 금융교육 실시 기관 인지 여부	· 71
〈표 3-22〉 금융교육 필요도	· 72
〈표 3-23〉 금융교육 만족도	· 73
〈표 3-24〉 금융교육 보완 사항	· 74
〈표 3-25〉 금융교육 참여 우선 고려사항	· 75
〈표 3-26〉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비용	· 76
〈표 3-27〉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장소	· 77
〈표 3-28〉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주체	· 78
〈표 3-29〉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내용	· 78
〈표 3-30〉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교육 방법	· 79
〈표 3-31〉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방법	· 80
〈표 3-32〉 금융교육 대상	· 81
〈표 3-33〉 7차 대(對) 8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시수 편제 비교	· 82
〈표 3-3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간’의 주요 내용	· 83
〈표 3-35〉 경제교육 교사의 대학전공과목	· 84
〈표 3-36〉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시장경제 및 기업 관련 내용 비교	· 85
〈표 3-37〉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시장경제 및 기업 관련 내용 비교	· 87
〈표 5-1〉 EC 회원국들의 금융교육 실시 사례	· 129

[그림목차]

[그림 3-1] 미래에셋 금융교육 현황 · 52

[그림 4-1] 영국의 초·중·고교 소비자 교육 구조 · 115

[그림 4-2] OECD의 금융교육 주제 · 131

[그림 5-1] 국가 차원의 운영체계 통합 구축(잠정 예시 안) · 147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금융에 대한 이해력 부족은 한 국가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특정 경제나 금융시스템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개개인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체제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정부 등 각 주체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해력 제고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는 국가적인 차원의 금융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의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부와 각 기관의 획기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금융지식 함양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민·관·연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국내 실태조사, 주요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EU 국가 등)의 사례분석 및 OECD 국가의 연구 동향 분석, 전문가 협의회, 정책 토론회 등을 수행하였다.

2. 금융교육의 정의와 역할

경제가 본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과 금융교육(Financail Education)의 구분은 모호할 수 있다. 금융교육은 별개의 영역이라기보다 경제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금융 관련 내용의 비중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개념과 원리 전달을 중시하는 반면, 금융교육은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을 금융에 두고 개인의 재무관리를 중시한다. 특히 금융교육에서는 신용관리 등 금융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금융이해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OECD는 “금융지식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항해하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 금융교육은 생활 주변의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안목을 길러주므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다.

3. 금융교육 체제 현황과 문제점

공교육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과목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하다. 경제교과서 역시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외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경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소극적인 금융교육 실행, 금융교육 내용과 대상의 제한성,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금융교육에 대한 일관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금융교육을 국가적·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력과 친숙도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정책 당국과 금융 당국협조 아래 공교육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4. 주요국 금융교육 체제의 시사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세계 주요국은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금융교육 제도 및 체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제 마련에 주는 7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금융교육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둘째, 국가금융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수요자 계층에 따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넷째, 교사에 대한 금융교육 연수를 확대한다. 다섯째, 각 급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여섯째, 인터넷 금융교육 활성화와 금융교육 교재 다양화를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금융교육 패키지를 공급한다.

5.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방안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금융교육 전달 체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교육 관련 블로그, 웹사이트 개설과 방송 매체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달 체제를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금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평가를 통해 금융교육의 수준을 분석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방법과 대상을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다. 각 급 학교 교원들에게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필요한 연수를 확대한다. 학교 외 금융교육 기관 및 강사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나아가 금융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한다.

6. 새로운 금융교육 지원 체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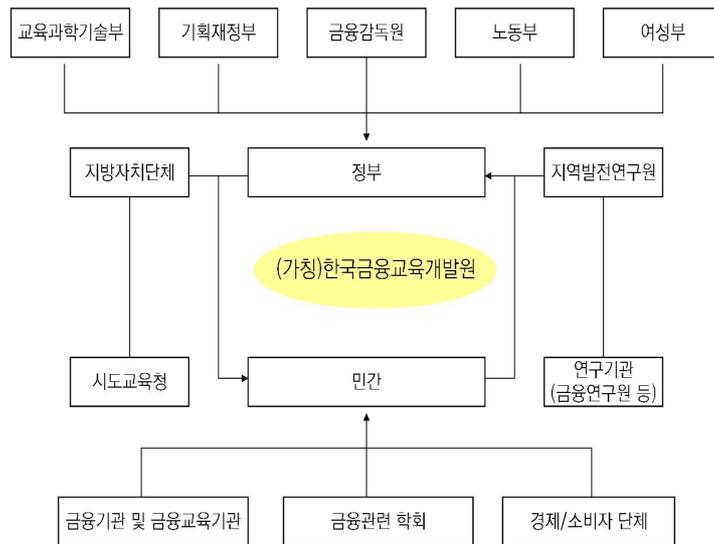
첫째,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시대의 변화 추이에 따른 새로운 금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연수를 수행한다.

둘째, 금융교육 품질 국가 공인제를 실시한다. 금융교육의 세부 영역구분을 통해 금융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한다. 이들 영역에 대해 필수적인 가치, 내용 등을 정하여 금융교육의 내용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의 중심적인 기능은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셋째, 금융교육 강사 자격 국가인증제를 도입한다.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일정 수준의 자격 검증을 통하여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균질화와 업그레이드를 추구한다. 이러한 인증제는 수준별 자격증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이의 관리를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통합 운영 체제를 마련한다.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역시 정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각 경제주체가 금융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국가 차원의 운영체계 통합 구축(잠정 예시 안)



제1장 서론

이남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금융에 대한 이해력 부족은 한 국가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특정 경제나 금융시스템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금융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의 한 예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많은 개인들이 모기지 상환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친척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나 부정직한 대출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한 모기지 구매행동에 편승하여 벌어진 사태였다.

또한 개인들의 금융이해도 부족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인들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개입 효과를 희석시켜 위기 확산에 일조하거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6년도 1%에도 미치지 못하던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2009년 1/4분기 중 5%대로 상승하면서 경기부양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절약의 역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세르비아,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예금 보험 및 보장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여 대규모의 예금인출 사태

를 경험하였다.

2008년 OECD가 출범시킨 국제 금융교육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실시한 설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설문은 금융위기와 금융교육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불충분한 금융이해도와 금융교육이 금융위기에 끼친 영향, 금융위기 경험에서 인지된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각국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금융 위기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절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과도한 증권화, 신용평가사의 과오 등은 금융기관, 전문가, 규제당국의 책임이지만 개개인의 금융이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위기 요인을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이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판단이 금융위기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노동식, 2009).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하나 민간, 정부 등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소비자에 대한 책무를 준수하고 금융상품의 적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현재까지의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왔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국민과 특정 취약 계층에 금융교육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투명한 금융정보 제공, 공정한 판매 관행의 확립, 금융상품 권유 및 금융자문 역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정부의 장려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 홍보, 워크숍이나 강의 개최, 전용 웹사이트 개설, 콜센터 개설 등을 시행하여 금융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사업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금융교육 정책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병행한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경제회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계의 금융역량 또한 향상될 것이다(노동식,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지식을 경제·금융이론이나 정보 습득 등 단순한 지식 차원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 때문이다.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은 신용카드 사태, 주택담보 대출 급증,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보이스포싱 사기피해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지식을 단순한 “지식(Knowledge)”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활용능력까지 포함되는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능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금융위기 방지와 완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금융교육은 금융 위기와 대응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다. 현재 국민의 금융이해도는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지만 이를 통해 대중의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금융교육은 금융역량의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와 금융상품 비교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금융 의사 결정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금융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제공자 간의 격차를 줄여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제도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셋째, 개인의 금융이해력 제고는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발전과 금융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금융 불안 시 합리적 시각을 유지하고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이해력의 수준 제고는 문화·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노동식, 2009.).

인구고령화, 가계 부채 증가와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금융상품 복잡화 등으

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 금융교육은 금융제공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과소비 등을 해소하고 금융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서비스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채무불이행 감소, 금융상품 이해 증가 등으로 매출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교육은 신용위기 예방과 자본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경제발전과 분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금융교육 역시 공공재의 일종이므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공교육에서의 금융교육,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설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 언론,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특히,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인구고령화를 감안하여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정 학교 수가 너무 적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대상도 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에게도 확대하여 노후 자금 설계를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서병호, 2008.).

정부, 금융기관, 협회 및 소비자 단체들도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교실 운영, 금융교육 책자 발간, 경제교육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

1) OECD는 2005년 국가별 금융이해도를 비교분석하고 금융교육 모범사례를 발간하였음. 2008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고위관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제에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장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국민의 열정과 연결시키는 자율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에는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부와 각 기관의 획기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금융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금융지식 함양과 더불어 국민의 투자자 교육이 금융시장의 발전적 정착과 지속적인 중장기 경제성장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가차원의 민·관·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선진화된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문헌분석

선행연구,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정책 자료, 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 분석, 금융교육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을 살펴 보았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금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 운영내용 및 체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 실태 조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별, 지역별로 설문지를 통해 현황 및 운영체제를 파악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의 지원체제 및 운영체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시범학교 및 일반 국민으로 하였다. <표 1-1>는 금융교육의 운영 실태와 지원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 기관현황 및 대상자 수이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각 대상자별로 금융지식 함양 증진을 위한 체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이었다.

<표 1-1> 금융교육 운영 및 지원체제 실태조사 대상

구분	기관명	대상자수	비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6	-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원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전주대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대,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 경남본부	13	-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금융교육포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여신금융협회, 씨티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비씨카드, 삼성증권, 미래에셋 및 기타 금융기관	55	-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5	-
한국경제교육협의회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무역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학관련기관연합회, 한국경쟁법학회	13	-

<표 계속>

구분	기관명	대상자 수	비고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사)	묘장초등학교(강원), 가천초등학교(전북), 합성초등학교(경남), 압해중학교(전남), 양진중학교(서울), 창원동중학교(경남), 지평선중학교(전북), 별내중학교(경기), 조치원여자고등학교(충남), 경상여자고등학교(대구), 김해대청고등학교(경남), 영일고등학교(경북),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서울),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경기),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경기),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전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	100	교사를 대상으로 1개 학교(총 20개교)당 5명 조사 실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시도) 13곳 농업기술센터 12곳	25	-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외 12개 시도	13	-
일반국민		770	
총계		1,000	

3. 전문가 협의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중앙부처 및 현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²⁾. 이를 토대로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문제점 및 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4. 정책 토론회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한

2)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의 전문가로 한국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성균관대학교, 동서대학교,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경제교육협회 등임.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체 인사, 민간 교육기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2009년 11월 6일 본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정책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가칭)한국금융교육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경제 과목을 사회 과목의 일부로 통합하고 교육내용도 축소하려는 경향 때문이다⁴⁾.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본 연구는 개인의 금융지식 함양 및 금융역량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 구축으로 복잡한 금융환경 하에서의 피해를 줄이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지식 함양으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경제인”을 육성해 냄으로써 중장기적 안정 성장과 장기적 정책 흐름을 밟는데 큰 도움이 기틀을 모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됨으로써 21세기 핵심 생활능력의 하나로 금융지식이 평생학습의 범주로 포괄되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한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조직을 잘 정비하여 유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음.

4) 현재 일반사회 선택과목인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과목 4개에서 2개로 축소함에 따라 경제과목도 축소될 예정임(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서안, 2009.9.29).

제2장 이론적 분석

이남철 · 조준모

제1절 금융지식 함양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은행(2009)은 국민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과 세금, 예금자 보호제도, 다양한 금융상식, 부동산과 세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수(2008)는 학생들의 경제인식 현황 및 문제점,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경제관련 과목, 교사의 전문성,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경제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하여 교과서를 포함한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본성(2007)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으로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시장의 자산관리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 또는 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자산 축적에 대한 지원요구와 금융지식 함양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부는 개인들이 금융자산 축적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신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거나 각종 정보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정환(2007)은 주요 선진국의 연금 관련 금융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 금융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19개국이 연금 및 퇴직에 대비한 저축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 및 감독기관이 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연금과 관련된 금융교육의 관련된 사례로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미국 노동부와 공동으로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 및 출판물 제작 사례, 이태리 정부가 연금감독기관과 공동으로 연금제도의 변화, 다양한 연금제도의 특징,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캠페인을 벌이는 사례, 스페인의 경우 증권시장 감독기관(CNMV)이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가이드를 배포 및 연금펀드 감독기관은 연금펀드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연금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의 사례를 통해 연금 관련 금융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주홍 외(2007)는 우리나라와 선진국(미국, 영국)의 청소년 금융교육 실태 분석과 금융지식 함양 제고 체제의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제안하고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금융교육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청소년 금융교육 관련 외국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청소년 금융지식 함양 제고체제의 로드맵 설정 및 추진계획도를 제시(3대 정책과제와 7대 실행 방안) 하였다.

이성엽(2006)은 호주직업교육정책의 동향 중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며, 특히 금융교육기관(홈스쿨랜 기술전문학교와 사설 금융기관인 호주 뉴질랜드 보험금융협회, 호주금융서비스협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금융 관련 직업훈련 및 기업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박상선(2005)은 국민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경제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경제교육을 위한 교사양성대학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교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철(2003)은 금융기관과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양국의 금융교육 주체가 금융기관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금융기관들은 인터넷에 친숙한 청소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금융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탑재하거나 금융교육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친숙한 청소년층의 관심을 제고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해외 사례 중에서 Citi Bank,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등은 금융교육용 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금융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김영기(2002)는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경제교육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 영국(금융감독청; FSA), 캐나다(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제교육 운영 실태, 경제 교육기관·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경제교육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gel Gurria(2009)는 IEFP와 OECD 파리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국제 추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금융위기가 가구, 개인들에게 더욱 많이 전이(transfer)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중 연구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금융기관, 정책담당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학교, NGO 등과의 민-관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캠페인 등을 전개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금융교육, 금융 캠페인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금융시장을 안정되게 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담당자들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 금융소비자 및 금융담당자들에 대한 금융지식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금융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교사, 청소년, 일반인,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 구축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금융교육의 정의와 역할

경제가 본래 “실물(경제)”과 “금융(경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과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의 구분은 모호할 수 있다. 금융 자체가 별개의 영역이라기보다 경제라는 큰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역시 경제교육이라는 큰 틀 내에서 금융 관련 내용의 비중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교육이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 등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론·개념 교육에 치중했던 미국 경제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이 커지고,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개인 파산의 급증·저축보다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금융(지식)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경제교육이 경제 전반에 걸친 개념과 원리전달을 중시한다면 금융교육은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을 “금융”에 두고 “개인의 재무관리(Personal Finance)”를 중시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금융교육에서 저축의 중요성, 합리적 소비, 신용관리, 금융상품의 특성 및 선택 기준 등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이루는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의 함양이 필요해졌다. 또한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금융이해력의 제고 또한 중요해졌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의 범위를 경제교육,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금융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지식, 소비자지식, 그리고 금융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경제교육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는 자원의 희소성, 수요와 공급, 한계효용 등 20여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교육기관인 “점프스타트(Jump\$tart)”의 『Personal Finance Standards』는 소득, 돈 관리, 지출과 신용, 저축과 투자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는 금융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OECD, 2008.).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자가 금융상품이나 금융 관련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다. 금융교육은 정보나 학습,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안정과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고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OECD는 “금융지식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해도,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지식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경제교육, 특히 금융교육은 생활주변의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안목

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의 함양은 필수적이다.

제3절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FQ)

금융이해력(FQ)은 실생활에서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금융이해력 측정은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1.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주도가 되어⁵⁾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각 해마다 초·중·고등학생의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환경을 정례적으로 조사했다⁶⁾. 이 같은 금융이해력 측정을 통해 국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과의 비교는 물론 금융교육 선진국인 미국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측정결과와도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이해력(FQ)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영역은 소득의 이해·재무관리의 이해·저축과 투자의 이해·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 4개 분야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의 원천, 합리적인 구매와 소비, 개인신용 관리요령, 경제 기초지식, 금융기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금융상품의 활용 등과 관련된 지식

5)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였으나, 2009년부터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기획팀으로 이관됨.

6) 조영석·박송춘 목포대 교수팀도 2006년부터 3년간 전남 19개 고교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바 있음.

및 이해도 수준을 30개의 4지선다형 문항으로 평가하여 금융이해력(FQ)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가. 초등학생 금융이해력⁷⁾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은 2005년과 2008년 2차례 실시되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2005년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금융이해력조사의 평균 점수는 56.6점이었고, 2008년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57.5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⁸⁾.

금융교육 하위 영역별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소득의 이해 영역 평균점수가 3.4점 올라 금융이해력 향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이며 저축과 투자 영역도 1.9점 상승하였다. 화폐 관리의 이해나 지출과 신용의 이해는 지난 2005년도에 비해 점수가 약간 떨어졌다. 전반적인 향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소득의 이해영역은 상당한 향상을 보였다(〈표 2-1〉 참조).

7) 내용은 주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8.10)를 주로 인용하였음.

8) 2008년의 경우 16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3,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684명(93.8%)임. 설문지는 〈부록 3〉 참조.

<표 2-1> 우리나라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단위: 점)

하위영역	2005년	2008년	증감
소득의 이해	54.6 ②	58.0 ②	+3.4
재무관리의 이해	67.4 ①	66.8 ①	-0.6
지출과 신용의 이해	53.1 ③	51.9 ④	-1.2
저축과 투자의 이해	51.4 ④	53.3 ③	+1.9
전체	56.6	57.5	+0.9

자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8. 10). p. ii.

초등학생의 경우 용돈을 받는 방법, 월 평균 용돈의 액수, 은행통장 개설 경험 여부 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이해력이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금융이해력 증진은 초등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행동 및 재무관리 행동, 돈에 대한 건전한 태도 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용돈 기입장 기입 등의 생활 속에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규교육과정이나 가정 및 사회교육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나. 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은 2004년과 2007년 서울과 수도권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생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2004년 40.1점이었으나, 2007년 55.5점으로 15점 이상 향상되었다⁹⁾. 특히 금융교육 실시학교(58.4점)

9) 2007년도 설문문항은 2004년도 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2007년도의 경우 14개 중학교 2~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2,403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각 지역별 재학생

가 금융교육 미실시학교(53.6점)보다 평균점수가 4.8점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2004년과 2007년 소득의 이해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 지출과 부채의 이해 영역, 화폐관리의 이해 영역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하여 저축과 투자의 이해(15.84점), 화폐관리의 이해(15.60점), 소득의 이해(14.88점), 지출과 신용의 이해(14.87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우리나라 중학생 금융이해력

(단위: 점)

하위영역	2004년	2007년	증감
소득의 이해	44.66 ①	59.54 ①	+14.88
화폐관리의 이해	35.80 ④	51.30 ④	+15.60
지출과 신용의 이해	44.15 ②	59.02 ②	+14.87
저축과 투자의 이해	36.52 ③	52.36 ③	+15.84
전체	40.11	55.45	+15.34

자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7. 10), p. 2.

중학생의 경우 성별, 용돈 받는 방법 등에 따른 이해도 차이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다만 2004년도와 비교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금융교육에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도 자녀들의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2004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이해력 수준은 개선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역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 남녀성비, 학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이 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설문지는 〈부록 4〉 참조.

다.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¹⁰⁾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측정은 2003년, 2006년, 2009년 3차례 실시되었다. 2003년과 2006년은 서울과 수도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9년은 전국의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였다¹¹⁾.

조사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55.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과 2006년과 비교하여 크게 향상된 점수이다. 그러나 점수의 상승분 대부분이 조사대상 확대와 설문지 난이도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은 0.8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¹²⁾.

모든 하위영역에서 금융이해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화폐관리의 이해 영역의 이해력 수준이 66.9점으로, 2003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소득의 이해 영역은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출과 신용의 이해 영역은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이해력이 가장 떨어진다(〈표 2-3〉 참조).

10) 내용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6.09)와 금융감독원(2009.10)을 주로 인용하였음.

11) 2009년의 경우 전국에 있는 25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7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391명(86.6%)임. 설문지는 〈부록 2〉 참조.

12)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2009.10) p.iii 참조.

<표 2-3> 우리나라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단위: 점)

하위영역	2003년		2006년		2009년		2006년 대비 증감	2003년 대비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점수
소득의 이해	48.7	①	50.6	①	53.7 (51.8)	③	+3.1	+5.0
화폐관리의 이해	39.2	④	48.3	③	66.9 (64.6)	①	+18.6	+27.7
저축과 투자의 이해	46.6	②	50.5	②	50.3 (49.1)	④	+3.9	+7.8
지출과 신용의 이해	44.0	③	45.0	④	54.5 (52.5)	②	+5.3	+6.3
전체	45.2		48.2		55.3 (53.5)		+7.1	+10.1

주: 괄호안의 점수는 서울 및 수도권 학생들의 평균임.
 자료: 금융감독원(2009.10), p. iii. 재편집.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별로,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조사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 수도권(경기 및 인천)> 서울” 순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았고,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다른 소득계층의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의 보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걸쳐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이해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 방법의 재고와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교육 설문조사¹³⁾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웹사이트 등록 회원 중 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은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도, 경제 관련 상식을 얻는 경로 등이 포함되었다.

중·고등학생의 절반이상(56.9%)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등 경제일반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이다'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2.2%와 20.2%로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가 8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 관련 상식을 얻는 경로는 중·고등학생은 주로 신문·방송(40.3%)이나 교과서(31.9%)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들의 경제 관련 지식 습득에 있어 세미나, 강좌, 캠프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29.5%)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밖에 교과서(25.0%), 신문·방송(21.8%)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사들의 경우 경제 관련 수업 활용에는 신문·방송(26.4%), 세미나, 강좌, 캠프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24.5%)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업 시 경제 관련 주제의 설명방법으로는 동영상(30.0%)이 가장 선호되었고, 교재, 모의 경영프로그램 등의 시뮬레이션, 만화, 게임, 동화·소설 등의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등학생과 교사는 직업선택, 신용교육, 재테크 등의 생활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생활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고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분야는 직업선택, 신용교육, 재테크 등의 생활교육(35.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장경제원리(11.8%)는 다소 낮았다. 교

13) 내용은 김근영 외(2004. 12)를 주로 인용하였음.

사들 역시 생활교육(68.6%)으로 응답하였으나 시장경제원리도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신문·방송과 교과서를 통해 경제 관련 상식을 습득하고, 모의 경영프로그램 등 시뮬레이션 방식의 설명을 선호하며, 중·고등학생과 교사는 생활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3. NFCC 2009 소비자 금융이해력 조사¹⁴⁾

가. 조사기관 소개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미국신용상담협회)는 미국의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민간 채무조정기구로서 저신용자 신용회복을 원스톱으로 돕는 비영리단체이다. 100개 회원 에이전시와 850개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용상담을 하고 있다. 채무진단에서부터 신용회복 계획, 다중채무 통합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 조사방법

2009년 금융이해력 조사는 NFCC를 대신하여 Harris Interactive에 의해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화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나이, 성별, 지역, 인종에 따라 실제 인구 비율에 가중치를 조정하여 비교 검토되었다.

14) 내용은 NFCC(2009)를 주로 인용하였음.

모든 표본 조사와 여론 조사는 확률 표본 추출 여부를 떠나 표본 오류, 범위 오류, 무응답 관련 오류, 질문 내용과 선택 문항 등 오차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가정하여 후속 연구에 비중을 두어 적용하여 실수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다. 조사항목(data)

〈표 2-4〉은 27개의 설문문항과 설문보기를 설명한 것이다.

<표 2-4> 설문문항 및 설문보기

설문문항	설문보기
Q. 다음 중 자신의 돈 관리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1. 음식, 집세, 오락 등에 대한 예산이 있고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알고 있다. 2. 음식, 집세, 오락 등에 대한 예산은 있으나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3. 음식, 집세, 오락 등에 대한 예산은 없으나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알고 자신이 세운 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4. 음식, 집세, 오락 등에 대한 예산이 없고,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5. 모르겠다. 6. 무응답
Q. 예산을 세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 돈을 쓰는 것에 제한 받고 싶지 않아서 2. 가정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아서 3. 예산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4. 예산의 범위를 알지 못해서 5.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지는 몰라서 6. 모르겠다. 7.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다음 중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청구서를 제 때 납부하고 있으며 회수될 빛이 없다. 2. 가끔 납부를 지키지 못하지만 회수될 빛이 없다. 3. 매달 청구서 납부를 겨우 처리하지만 회수될 빛이 없다. 4. 독촉을 받아 매달 청구서 납부를 겨우 처리한다. 5. 심각하게 파산신청을 고려하거나 지난 3년동안 파산신청을 한 적이 있다. 6. 돈이 가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포함한 어떤 재정 결정도 하지 않는다. 7. 모르겠다. 8. 무응답
Q. 예금이 있는가? (노후자금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4. 무응답
Q. 가족 내의 근로자마다 저축하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달 수입 저금 2. 2~3달 수입 저금 3. 3개월 이상 수입의 저금 4. 모르겠다. 5. 무응답
Q. 현재 저축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된 수입에서 여유가 없어서 2. 급한 상황에 저금을 사용해서 3. 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4. 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5. 기타 6. 모르겠다. 7. 무응답
Q. 만약 긴급상황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복수 응답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2. 현금으로 3. 대출을 받아서 4. 다른 재정적 부채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5. 기타 6. 모르겠다. 7.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평균적으로 매년 가정 수입의 몇 퍼센트를 노후자금으로 저금하는가?	1. 0% 또는 하지 않는다. 2. 1%~10% 3. 11%~20% 4. 20% 이상 5. 벌써 은퇴하였다. 6. 모르겠다. 7. 무응답
Q.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복수 응답 가능)	1. 자동차 보험 2. 의료 보험 3. 생명 보험 4. 주택소유자 보험 5. 장애 보험 6. 재해 보험 7. 장기요양 보험 8. 임대자 보험
Q. 현재 주택융자를 받고 있는가? (대상: 18세 이상 성인)	1. 그렇다. 2. 아니다. 3. 지난 1년 내에 모두 납입했다. 4. 모르겠다. 5. 무응답
Q. 현재 주택융자를 받고 있는가? (대상: 18세 이상 성인+ 주택 소유자)	1. 그렇다. 2. 아니다. 3. 지난 1년 내에 모두 납입했다. 4. 모르겠다. 5. 무응답
Q. 지금 생각할 때 예비의 또는 주요한 저당(모기지)은 무엇이 좋겠는가?	1. 고정금리 저당 대출 2. 변동금리 저당 대출 3. 이자만 내는 저당 대출 4. 주택연금(역모기지) 5. 기타 6. 모르겠다. 7.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어떠한 경우 저당대출의 조건이 당초 예상과 달라졌다고 느끼는가? (복수 응답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달 납입 금액 2. 이자율 3. 처음 이자율의 지속 기간 4. 개인저당보험(PMI) 매달 납입 금액 외에 추가 비용 5. 저당대출 조건을 다시 책정하여 새로운 금액으로 변경 6. 다른 것 7. 기타 8. 모르겠다. 9. 무응답
Q. 지난 12개월 안에 신용조사 결과의 복사본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4. 무응답
Q. 당신의 신용 점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0 미만 2. 500~599 3. 600~699 4. 700 이상 5. 신용 점수를 알아 본 적이 없다. 6. 신용 점수를 알아 본 적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7. 모르겠다. 8. 무응답
Q. 대략 신용카드 빚이 얼마인지, 있다면 매달 가정에서 얼마나 지출하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499 2. \$500~\$999 3. \$1,000~\$2,499 4. \$2,500~\$4,999 5. \$5,000~\$9,999 6. \$10,000 이상 7. 해당사항이 없다 8. 모르겠다. 9.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가? (복수 응답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카드를 취소했다. 2.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다. 3. 신규 카드를 발급했다. 4.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5. 신용카드 대금의 잔액을 다른 카드로 옮겼다. 6. 신용카드 대금의 최소 금액을 납부했다. 7. 신규 카드 발급을 거절당했다. 8.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9. 신용카드 대금을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통합했다. 10. 해당사항이 없다. 11. 모르겠다. 12. 무응답
Q.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정기적인 한 달 경비를 신용카드 사용 없이 현금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 현재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야한다면 할 수 있다. 3. 현재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할 수 없다. 4. 모르겠다. 5. 거절
Q.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경제 상황이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년보다 많이 지출한다. 2. 작년보다 약간 많이 지출한다. 3. 작년과 동일하게 지출한다. 4. 작년보다 약간 적게 지출한다. 5. 작년보다 많이 적게 지출한다. 6. 모르겠다. 7. 무응답
Q. 만약 재정 상황이 내년 안에 나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속 적게 지출한다. 2. 작년 정도로 지출을 늘린다. 3. 모르겠다. 4. 무응답
Q.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경제 상황이 저금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어떻게 저금하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년보다 많이 저금한다. 2. 작년보다 약간 많이 저금한다. 3. 작년과 동일하게 저금한다. 4. 작년보다 약간 적게 저금한다. 5. 작년보다 많이 적게 저금한다. 6. 모르겠다. 7.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현재의 금융 지식 상태를 생각할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이나 집에서 2. 스스로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3. 금융 전문가에게서 4. 학교에서 5. 친구들에게서 6. 인터넷을 통해서 7. 일을 하며 8. 배우자나 동업자에게 9. 스스로 10. 해당사항이 없다. 11. 모르겠다. 12. 무응답
Q. 스스로의 금융지식에 점수를 준다면 A~F 중 어느 점수를 줄 것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2. B 3. C 4. D 5. F 6. 모르겠다. 7. 무응답
Q. 다음과 같은 설명에 동의하는가? “현재 자신의 금융지식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금융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충고나 대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6. 무응답
Q. 미국신용상담협회 또는 NFCC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잘 안다. 2. 다소 잘 안다. 3. 잘 알지 못한다. 4. 전혀 알지 못한다. 5. 모르겠다. 6. 무응답

〈표 계속〉

설문문항	설문보기
Q. 소비자신용상담협회 또는 CCCS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잘 안다. 2. 다소 잘 안다. 3. 잘 알지 못한다. 4. 전혀 알지 못한다. 5. 모르겠다. 6. 무응답
Q. 다음 중 자녀 혹은 자녀교육에 관련한 현재 당신의 자금 계획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것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29 plan¹⁵⁾ 이나 다른 교육 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 혹은 자녀들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2. 교육 예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출 없이 4년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3.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을 지원해주고 싶지만 아직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4. 자녀 혹은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싶다면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가야한다. 5. 부모나 후원자가 없다. 6. 모르겠다. 7. 무응답

자료: NFCC(2009), pp.4~13.

라. 조사결과

1) 금융이해력

미국 성인의 41%, 또는 미국의 거주하는 9,200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금융 지식에 대해 C, D, 또는 F의 점수를 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Y 세대¹⁶⁾의 성인이 47%이다. 성인의 80%는

15) 529 Plan은 크게 Prepaid Program과 Saving Program으로 나뉘는데 Prepaid Program은 약속된 금액을 불입하면 해당 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 등록금이 얼마로 인상이 되든 상관없이 주정부에서 대납해 주는 것을 말함. Saving Program은 일종의 Mutual Fund 개념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한 Administrator가 유망한 회사채나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임.

16)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낳은 2세들을 일컫는 말로, 현재 10대~20대를 지칭함.

매일 금융에 관한 전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나 충고로 혜택을 받는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이 중 1/3(35%)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2) 예산

2007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인의 42%가 그들의 지출 내역에 대해 알고 있다. 거의 1,600백만 명(7%)은 그들이 음식, 집세, 노후자금에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 몰랐다. 또한 그들의 전반적인 소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3) 빚과 신용카드

5,800백만 명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는 26%가 청구서의 전부를 제 때 결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미국 흑인의 경우는 이 비율이 51%에 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3,400백만에 해당하는 15%의 성인이 신용카드 납입을 연체하고 있고, 1,800백만 명에 해당하는 8%의 성인이 거의 납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1,300백만 명(6%) 이상이 가정의 신용카드 빚이 매달 마다 10,00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붙는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은 파산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3년 이내에 파산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집

성인 중 42%, 9,400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현재 주택 용자를 받고 있으며, 그 중 28%는 주택용자 기간이 그들의 예상과 다소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이나 대부기간이 예상과 다른 것을 비롯하여, 이자율이나 그 기간이 달랐으며, 또는 개인모기지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5) 저축

성인의 1/3 이상(32%), 또는 7,200백만 명의 사람이,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 23%만이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년 전보다 많이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연령대보다 다수인 Y세대의 성인 거의 절반인 48%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4명 중 1명 이상이 신용카드 빚(29%)이나 은행대출(26%)에 대한 비용으로 그들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어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소비

성인의 57%가 일 년 전과 비교하여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 중 45%는 지금 그들의 재정 상황이 내년 안에 개선된다면 이전의 소비 습관을 다시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7) 신용점수

거의 2/3인 64%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년도 신용조사결과와 복사본을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 넘어가면 거의 3/4인 72%로 늘어났다. 더구나 1/3 이상인 37%가 자신의 신용점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노후자금

성인의 33%인 7,400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간수입 중 노후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8년도의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9) 보험

10명 중 1명 이상(13%)인 2,900백만 명의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Y세대의 경우 20%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성인 중 72%가 장기요양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2,400백만 명을 넘는 것이다.

제3장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이남철 · 전현중

제1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현황 분석

1. 공공기관

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1) 개요

기획재정부의 경제·금융교육은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금융 및 신용사회 구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경제교육협의회'¹⁷⁾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별기관이 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3-1〉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7) 2004년 국민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 등 경제교육 관련 14개 주요기관들과 구성한 '민·관 경제교육 실무협의회'를 2006년 개편 및 확대함.

<표 3-1> 경제교육협의회 참여기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은행, JA 코리아, KDI 경제정보센터 등 18개 기관

2) 사업

초중고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지역경제교육센터 설치, Clearing-House 구축 및 운영, 실용 경제교육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교육 교재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하도록 소비생활·일과 직업·기업가 정신 3가지 주제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재 전체 내용을 경제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ee.re.kr) 및 click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click.kdi.re.kr>)에 탑재하였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6개 광역권(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충남권, 호남권, 제주권)과 3개 시도(충북, 전북, 경남)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⁸⁾ 정부는 지역 청소년·교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비용 등을 지원하며, 표준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강사풀을 통해 우수 강사를 지원한다.

Clearing-House는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교재,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교육 수요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찾기 어려워 개발단체가 발간한 교재 또는 프로그램 등을 On-Line 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18) 2006년 7월부터 4개 광역권(대구·경북, 동남, 충청, 호남)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운영 하였음. 2009년 6개 광역권 및 3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였음. 지정 센터는 대전발전연구원, 대구 경북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전주대 산학협력단, 경상남도임.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대,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참여.

공간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다.

실용경제교육 경진대회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경제교육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재미있는 경제교육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나. 한국은행

1) 개요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경제강좌, 경제교육 홈페이지, 금융생활 길라잡이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 경제캠프, 한국은행 방문강좌, 외부기관 강의 지원,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은 금요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프로그램

① 금융생활 길라잡이

‘금융생활 길라잡이’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해오는 책자로 금융과 생활설계,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과 세금, 예금자 보호제도 등 국민들이 금융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식, 부동산과 세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등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② 청소년 경제 강좌

‘청소년 경제 강좌’는 경제교재편찬위원회가 만든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를 토대로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만들어 신청을 받은 뒤 직접 학교로 찾아가 강의 해주고 있다. 신청한 학급을 방문하여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기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순환구조 등 실제적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

이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경제 이론을 잘 설명하여 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며 2009년도에만 600회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③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는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 경제교육 사이트다. 일일학습,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제공하여 특히, 각 급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이용도가 높다(〈표 3-2〉 참조).

홈페이지는 대상에 따라 어린이 경제마을, 청소년 경제나라, 대학생/일반인 경제세계 3개의 서브 사이트가 있으며, 각각의 서브 사이트는 크게 경제학습과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학습은 경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닝(e-learning) 방식의 매일학습과 경제플래시, 동영상, e-book, 주요 발간자료, 경제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는 학습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지식 나누기, 클럽, 경제글쓰기 코너 등 대화와 정보교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콘텐츠 현황

홈페이지	상위메뉴	하위메뉴		
대학생/ 일반인 경제세계	경제학습	·매일학습 ·e-book 경제 ·경제 플래시 ·통화정책	·금융강좌 자료 ·주요 발간자료 ·경제칼럼	·경제 도우미 ·동영상 강좌 ·오늘의 퀴즈
	커뮤니티	·경제지식나누기 ·권장 경제도서 ·경제 글쓰기	·경제 클럽 ·설문조사	·Quick Poll ·자유게시판
청소년 경제나라	경제학습	·매일학습 (일일학습,e-book 등) ·경제 플래시 ·금융경제교실	·테마경제 ·논술도우미 ·경제 칼럼 ·금융생활 길라잡이	·각국의 화폐 ·동영상 강좌 ·경제만화 ·오늘의 퀴즈
	경제게임	·경제라이프 시뮬레이션 ·무한질주 ·이코노월드 ·모의투자	·기준금리 결정 ·도전GDP ·경제퀴즈지존 ·배틀 퀴즈 ·물가체험	·환율팡팡 ·퍼즐제로 ·경제빙고 ·심리 테스트 ·크로스워드
	커뮤니티	·경제지식나누기 ·권장 경제도서 ·선생님 자료	·청소년 경제 글쓰기 ·청소년클럽 ·e-카드	·설문조사 ·Quick Poll ·자유게시판
어린이 경제마을	경제학습	·매일학습 (일일학습,e-book 등) ·경제 플래시 (한글판 및 English Version)	·경제와 숫자 ·돈과 생활 ·화폐와 경제	·각국의 화폐 ·동영상 ·경제만화 ·오늘의 퀴즈
	경제게임	·세계 경제여행 ·무한질주 ·이코노 월드 ·퍼즐제로 ·경제빙고 ·경제퀴즈왕	·배틀 퀴즈 ·종자돈 만들기 작전 ·터치! 화폐퍼즐 ·화폐도안 만들기 ·과녁 맞추기 ·에드벌룬	·경제지식눈싸움 ·아자! 김밥왕 ·지폐찾아 세계로 ·크로스워드
	커뮤니티	·어린이 용돈기입장 ·경제지식나누기 ·권장 경제도서 ·선생님 자료	·어린이 경제 글쓰기 ·어린이 클럽 ·e카드	·설문조사 ·Quick Poll ·자유게시판

자료: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 정리.

3) 실적

한국은행은 대표적인 경제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특히,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세분화된 사이트 운영으로 학생, 교사, 일반인 등 총 회원수 7.9만 명, 총 방문자수 5백만 명(2008년 12월 기준)을 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 경제교육 사이트다.

다. 금융감독원

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02년 '소비자교육실'을 신설한 것으로 시작하여 금융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대상 교육·연수,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문 교육, 금융소비자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금융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신도록 추진하여 2005년 중·고등학교 사회와 경제 교과서에 신용관리 등 실제 금융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① 소비자교육실

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한 원내의 강사요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교육 특강은 <불법유사금융·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신용사회와 신용카드>, <금융세무 및 금융상품에 대한 재테크>, <금융분쟁조정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경제 강좌'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대책>,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시 유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및 이용시 유의사항>, <생활경제 및 어린이 경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② 금융교육시범학교¹⁹⁾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고 교원의 금융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초청하여 강의와 더불어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견학 등 현장체험 교육을 연중 4~5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금융 책자와 멀티미디어 등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학교 내 금융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009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 전체 20개교이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3-3〉 참조).

<표 3-3> 2009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구 분	교 육 내 용
초등학교(3)	묘장초등학교(강원), 가천초등학교(전북), 합성초등학교(경남)
중학교 (6)	압해중학교(전남), 양진중학교(서울), 창원동중학교(경남), 지평선중학교(전북), 별내중학교(경기), 배제중학교(서울)
고등학교 (11)	조치원여자고등학교(충남), 경상여자고등학교(대구), 김해대청고등학교(경남), 영일고등학교(경북),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서울),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경기),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경기),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전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

주: 괄호 안은 시범학교 대상 수임.

〈표 3-4〉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육 내용이다.

19)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3-4>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초등학교	공통	- 어린이 용돈관리요령 - 금융기관의 종류와 역할
	특성화	- 예금, 적금 등 저축상품별 특징 - 금융감독원의 주요 기능
중학교	공통	- 청소년 신용관리요령 - 금융기관의 종류와 주요기능
	특성화	- 자금 수요와 공급 해설 - 건전한 재테크의 의미 - 농촌경제와 금융시장의 관계
고등학교	공통	- 청소년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소비 - 금융기관의 종류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 금융시장의 기본원리와 경제발전
	특성화	- 세계의 금융시장 해설 - 고용, 실업 그리고 경제정책 이해 - 이자율과 주가변동, 주식시장 등 - 기회비용, 환율, 콜금리 등 해설 - 합리적인 소비와 경제신문 바로 보는 법
(교사)	공통	-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및 소비자 권익보호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4.1).

③ 금융교실(<http://edu.fss.or.kr>)

금융감독원은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등 수준별로 사이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금융길라잡이-금융교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만든 각종 금융교육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용돈관리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④ 소비자단체 상담직원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감독원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담직원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표 3-5> 참조). 2009년 4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에 걸쳐 연 4회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상

담 및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각종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 한다.

<표 3-5> 소비자단체 상담직원을 위한 금융교육

대상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의 11개 단체 상담직원
교육내용	금융경제지식,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신용카드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증권투신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생명손해보험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사금융 피해 및 전화사기 예방요령 등 8시간 강의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4. 22).

⑤ 실업자·농어촌 주민을 위한 금융교육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가 채무상환능력 약화 및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자, 농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이 올바른 금융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등 주요 도시 소재 13개 고용지원센터 및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등 12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금융특강을 개설하였다(〈표 3-6〉 참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인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 사금융 피해 및 전화사기 예방 등을 강의한다.

<표 3-6> 농업기술센터의 농어촌 주민 대상 금융교육

대상	농업인, 우수농업인, 여성농업인, 우수양돈농민, 농업인대학원생 등
교육내용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지식, 은행·신용카드거래시 유의사항,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지식, 은행·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은행·비은행거래시 유의사항 등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4. 10).

⑥ 다문화 가정주부를 위한 금융교육²⁰⁾

금융감독원은 개방화 진전 및 국제결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금융교육프로그램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지역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금융기초지식,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신용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교육희망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금융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주부들이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실적

① 2009년 상반기 실적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금융교육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대상으로는 어린이·청

2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09.14) 참조.

소년 12,648명, 군장병 10,268명, 대학생 4,473명, 실업자·농민 4,185명에 달한다(〈표 3-7〉 참조).

<표 3-7>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연인원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어린이·청소년	240	51,308	61	10,828	104	12,648
대학생	18	2,940	8	1,470	35	4,473
군장병	65	18,389	3	850	52	10,268
실업자·농민	39	3,400	21	1,750	67	4,185
일반인	93	6,309	29	2,150	61	3,732
계	455	82,346	122	17,048	319	35,306

주: 동기간 비교를 위해 2008년 상반기와 2009년 상반기 통계를 제시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07.08).

또한 금융지식 및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갖춘 건전한 금융수요자 육성을 위해 2009년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122회 많은 319회에 걸쳐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00회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교육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 중 12,777개 기관에 교육안내문을 발송하였다.

② 금융교육 시범학교

〈표 3-8〉은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육 실적이다.

<표 3-8> 최근 3년간 시범학교 교육실적

(단위: 회, 명)

구 분		학교방문교육		현장체험교육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07년도	초(4)	11	745	2	156	13	901
	중(4)	14	4,504	3	233	17	4,737
	고(5)	21	3,636	4	315	25	3,951
	계(15)	25	5,249	5	389	30	5,638
'06년도	초(5)	17	2,073	5	299	22	2,372
	중(7)	23	5,162	7	397	30	5,559
	고(8)	33	6,775	6	570	39	7,345
	계(20)	65	12,484	17	1,085	82	13,569
'05년도	초(4)	10	1,062	5	330	15	1,392
	중(3)	13	810	3	120	16	930
	고(1)	2	1,250	6	380	8	1,630
	계(8)	88	14,356	25	1,535	113	15,891

주: 괄호 안은 학교 수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04.01).

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가 채무상환능력 약화 및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프로그램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등 주요 도시 소재 13개 고용지원센터 및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등 12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를 거쳐 금융특강 개설하였다. 금융특강에서는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 사금융 피해 및 전화사기 예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강의된다. 금융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는 경제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경제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정보를 요약한 보고서와 외신보도 번역문을 홈페이지(epic.kdi.re.kr)에 올려두고, 청소년 교육을 위해 2003년부터 클릭 경제교육(clic.kdi.re.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 내 '질문있어요' 코너에 자주 제기된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를 발간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경제이론, 추가·관련 질문, 보충학습, 심화학습, 입술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입체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매년 청소년들의 경제지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생각한다. 때문에 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제교육 홈페이지(hi.korcham.net) 운영, 경제도서 발간, 최고경영자(CEO) 학교 방문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교육 사이트인 '하이 경제'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상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시장경제의 장점과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제고,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 기업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 등을 목표로 한다.

2.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가. 금융교육포럼

금융·투자자 교육 관련 순수 민간 교육기구들과 공동으로 가칭 '금융교육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투교협, 한국투자자교육재단, 대학생경제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JA 코리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교육기구가 설립되어 활발한 교육활동을 수행 중이나, 교육기간 사업 중복을 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 사업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공동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럼구성이 추진되었다.

금융교육포럼은 교육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각 기구의 교육 사업을 조율해 가면서 필요시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관련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 개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증권협회, 한국거래소(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2005년 6월 설립한 투자교육전문기관이다. 증권교실, 이슈특강 등 성인 대상 교육과 어린이 금융교실, 투자자교육아카데미, 경제캠프, 경시대회 등 초중고교생 대상의 투자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경제·증권 관련 교육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금융교육협력학교를 지난 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용 영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고교용 금융교육 표준교육안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활동을 벌여 금융 투자능력의 격차도 줄어나갈 방침이다.

2) 프로그램

① 경제캠프 및 방문교육

초등학생 교육은 경제이야기, 용돈 관리 등 일반 경제에 관한 사항을 체험학습의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박 2일 경제캠프 형식으로 진행되고, 중·고교생 교육은 경제 이외에도 예절교육, 직업선택 및 성공적인 취업전략 등 교양교육으로 구성된 1일 경제교실 및 강사 파견프로그램을 통한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경제·증권 Hi-school

온라인교육: 고교생 교육콘텐츠 '경제·증권 Hi-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와 증권분야를 포괄하는 청소년용 교육콘텐츠로서는 처음 개발된 것으로, 1단계 '경제·증권 캠프'에서 경제와 증권시장의 기본내용을, 2단계 '경제·증권 플러스'에서는 금융·투자영역별 심층내용을 배우게 된다. 증권교실 참가, 경제기사 활용, 증권시장 현장탐방 등 다양한 학습방식을 적용하고, 실생활

과 연계된 사례 등의 콘텐츠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다. 한국증권업협회

홍콩, 영국, 미국 등 세계 우수 금융전문교육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투자·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호주 최고의 금융교육기관인 호주증권금융연수원(Financial Services Institute of Australasia)과 증권, 금융인력의 공동 개발 및 협력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화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교강사 지원, 교육내용 자문, 세미나 개최 및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강좌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의 증권, 금융실무자 교육기관인 홍콩증권전문학회(HongKong Securities Institute: HKSI)와도 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

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사용 홍보와 신용관리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민간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교육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청소년층에 대한 신용교육 중요성에 착안해 학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마. 보험연수원²¹⁾

보험연수원은 보험 교육기관으로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국내외 보험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보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금융전문과정이 있다. 금융전문과정은 금융자격

21) 보험연수원 홈페이지(<http://www.in.or.kr>).

과정, 기초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있는 사이버 과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격과정은 증권펀드투자상담사과정,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과정,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과정 등이며, 기초과정은 회계이해, 재무이해 등이다. 일반과정은 기업재무, 회계기초 등이며, 심화과정은 알고보면 쉬운 선물옵션, 실무에 강한 재무재표 분석 노하우 등이다.

바. 한국금융연수원²²⁾

한국금융연수원은 1976년에 개원하여 금융전문분야 연수를 통한 인력양성과 함께 금융전문자격제도 및 전문도서 출판 사업 등을 펼쳐왔다. 특히 금융연수원은 국내외 금융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전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의 금융교육 사업으로는 금융전문교육과정 운영, 금융전문도서 출판 및 보급, 금융전문 자격제도 운영 등이 있다. 금융전문교육과정은 10개 분야로 세분화된 금융전문 영역에 대해 집합연수 116개 과정, 통신연수 53개 과정, 사이버연수 42개 과정, 기타 연수 1개 과정 등 총 2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전문도서 출판 및 보급은 금융이론과 실무지식 보급을 위한 연수교재, 다양한 금융전문서적, 금융사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전문자격제도는 금융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수여하는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사이버연수를 통해 개인맞춤학습 및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 연수는 어음·수표 실무 사례, 금융자산관리(FP) 투자자산운용,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과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통신연수, 집합연수를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481개 기관의 33,191명이 교육을 받았다.

22)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kbi.or.kr/>).

사. 씨티은행

한국 씨티은행의 금융교육은 모기업인 씨티그룹이 주창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세 가지 축인 '금융교육', '차세대 교육', '지역사회 및 사업기반 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2006년 대한YWCA연합회와 손잡고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 머니(Think Money)'를 개설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 머니'는 한국 씨티은행과 대한YWCA 연합회가 금융기관의 노하우와 청소년 운동의 전문성을 결합시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정립하고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본 프로그램은 2009년에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미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씽크머니에 참여한 초·중학생만도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아. 하나은행

1) 개요

하나은행의 금융교육 중에서 2008년 오픈한 온라인 사이트 '하나시티'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화 되어 있다. 영업점과 연계한 경제뮤지컬 역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교육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2) 프로그램

① 하나시티

'하나시티'는 만 10세~1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및 직업교육 사이트이다. 은행업계 최초로 사이버 공간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플래시, 게임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Web 3D 기반의 온라인 웹 사이트이다. 하나시티 우수회원에게는 장학금 수여, 경제캠프, 강연회, 기업체험 활동 등에

우선적 자격을 부여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과 연계하고 있다.

② 경제뮤지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뮤지컬'을 기획하여 경제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전국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나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와 요술저금통'을 공연하였다. 공연을 통해 돈의 중요성과 경제개념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3) 실적

참여와 재미를 모티브로 한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기존 타행의 온라인 금융교육과 차별화되어 호응이 높다. 경제뮤지컬의 경우 영업점을 연계한 학교기관 선정으로 영업점과 학교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 KB국민은행

1) 개요

KB국민은행은 미래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 등 전 국민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금융교육자료에 근거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프로그램

KB국민은행은 국내에 금융교육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2002년 9월에 금융교육 TFT를 구성하여 '스무살 이제 돈과 친해질 나이'라는 금융교육 책자의 발간을 필두로 금융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다수의 금융교육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가운데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대학 등의 각 급 학교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의 일반인,

그리고 군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객 대상의 오프라인 현장방문 금융교육 활동 역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부터는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아동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거래 일반고객에게 올바른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객대상 금융교육 만화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는 전국의 310명에 이르는 KB 그린 경제교육 봉사단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5개 대상별로 세분화된 멀티미디어자료(애니메이션, 플래시, 동영상 등)를 활용하여 영업점 근처에 위치한 학교나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금융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 실적

KB국민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 대상의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향신문사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금융위원장(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차. 비씨카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군부대 순회 신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30대 소비행태의 현황과 문제점,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불량자 실태 및 신용문제 해결 방법, 신용카드의 특성 등을 주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50 여개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 방문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카. 미래에셋

1) 개요

미래에셋은 인터넷을 통한 성인 대상 투자자교육 이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함께 틴틴 경제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확대된 경제교실 형태인 '금융체험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사 어린이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캠프인 '우리아이 글로벌 리더 대장정'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2)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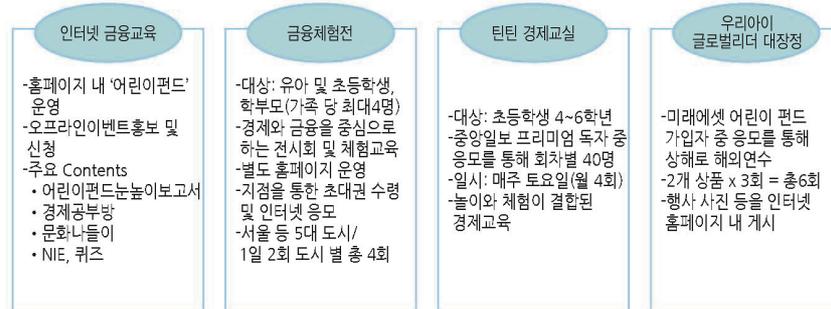
① 금융체험전

금융체험전은 경제, 금융을 주제로 하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체험전이다. 게임, 놀이 등 체험을 위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호응이 높다.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응모, 행사 공지를 비롯한 행사사진 게시, 참가자 후기 이벤트 등 사후 프로모션을 병행하고 있다.

②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금융 및 경제 개념을 키워주기 위해 자사 어린이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 위주의 해외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중국 상해의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글로벌 경제 교육을 체험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추구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09년 2월까지 총 6회가 진행되었다.

[그림 3-1] 미래에셋 금융교육 현황



3) 실적

금융체험전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미래에셋 고객 1,000여 가족과 인터넷 응모를 통한 1,000여 가족을 초청하여 약 2,00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5대도시 이외에 중소도시에도 행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행사에 대한 호응 및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역시 최근 6회 대장정에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총 누적 참여인원이 2,616명에 달한다. 미래에셋 금융교육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온라인 금융교육과 오프라인 금융교육이 병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3. 사회기관 및 언론기관

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교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경제교육 교습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가 개발한 ‘체험식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중·고등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재를 제작하였으며, 연수회를 통해 경제의 기본원리를 직접 참여하여 체득하는 체험식 경제교

육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체험식 경제교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토의학습, 협동학습 등을 통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개념을 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²³⁾

초·중·고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등 방문 무료출장 교육,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집중 교육, 주말 금융·경제 교실, 어린이·청소년 금융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각 지역마다 지방은행들과 함께 청소년 금융교육을 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북, 충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경남,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의 지역별 협의회와 협력하여 초·중·고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다. 경향신문

금융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에코에듀(Economy Education; ECED)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찾아가는 금융교실’, ‘용돈기입장 나누기’, ‘대학·금융교육 특강’ 등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 연재하였다.

금융교육을 신청한 학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금융 및 신용관리 교육을 해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실’은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지에서 주 2회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중·고교, 어린이 학부모회 등이 다수 참여했으

23)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www.fq.or.kr).

며 특히 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사각지대 기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강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강사가 연예인 얘기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용돈기입장 5만부 제작하여 228개 학교 및 기관에 모두 36,553부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라. 한국경제신문

1) 개요

‘찾아가는 경제교실’ 진행,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TESET) 주관, 온라인상의 경제교실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프로그램

① ‘찾아가는 경제교실’

일반시민,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전국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원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주요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재테크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그린코리아 증시포럼’, ‘시민경제교실’, ‘맞춤형 경제·증시 강좌’ 등의 주제별 특강이 이뤄지고 있다.

②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ET) 주관 및 시행

대학생들이 시장경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개인의 선택이 민주적 질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도록 하자는 것이 이 시험의 목표로, 미국의 경우 TUCE(Test of Understanding College Economics; 경제이해력테스트)와 같은 국가 공인 이해력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제신문인 닛케이가 주관하는 ‘닛케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③ 한경 경제교실 홈페이지 운영(<표 3-9> 참조.)

<표 3-9>는 한국경제신문사의 경제교실 홈페이지를 설명한 것이다.

<표 3-9> 한경 경제교실 홈페이지 구성

경제야 놀자	증권	부동산	재테크
풀어쓴 뉴스 이 숫자가 뭐지? 증권기사 해설 한경톱뉴스	증권기초상식 초보주식실전 Online 증권 특강 왕초보주식교실	부동산상식 아파트투자 세부ABC 부동산 Q&A	절약 노하우 은행이용법 카드재테크 펀드가 머니?

자료: 한경 경제교실 홈페이지(<http://hankyung.com/economy>) 참고.

마.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은 청소년 경제신문을 발간하여 중·고생에게 올바른 시장 경제 철학을 심어주기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09년 과학 중심의 '틴 매일경제'를 전면 개편하여 경제뉴스, 경제기초지식, 기업과 기업인 등 시장경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격주로 제공한다. 틴 매일경제를 통해 빈약한 중·고교의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한 단계 높은 심화 경제 학습의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틴 매일경제’ 내용 및 활용방법

구 분	지면내용	활용방법
경제이슈 따라잡기	-커버스토리(핫이슈) -글로벌 헤드라인 -정부 경제정책 돋보기	-국내외 경제 흐름 이해 -경제논술 테마로 활용 -정부 정책 이해도 높이기
시장경제 개념파악	-세계 경제교과서 연재 -만화로 배우는 경제	-건강한 시장경제 철학 고취 -시장경제 역사·흐름 쉽게 파악
기업& 기업인	-주요 기업 경영 소개 -CEO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에 대한 건전한 정서 함양 -올바른 기업가정신 학습
자가진단 마당	-경제이해력 테스트 -양방향 논술 점검	-경제이해력 자체 점검 -경제논술 실력 자가진단
참여마당	-선생님 지상(地上) 경제 강의 -객원기자&모니터 클럽 -경제교육 우수 학교 소개	-학교 브랜드 가치 제고 -교사학생들의 지면 참여 경험 고취

4. 민간기관

가. 아이빛연구소

아이빛연구소는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외국의 선진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발전 시켜 독자적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경제, 경영, 금융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리더십, 경제적 마인드 함양과 아이들이 경제를 접함에 있어 실습과 참여, 체험을 통해서 흥미롭게 접근,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아이들에게 경제를 교

육할 수 있도록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하나, 아이들 대상의 콘텐츠가 보다 풍부한 편이다.

나. YMCA²⁴⁾

국민의 경제의식과 신용문화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건강한 신용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2002년 7월 YMCA 내에 '신용사회 운동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차적으로 '청소년 신용관리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각 지역 YMCA와 연계하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지원 및 기부금으로 교사들을 위한 청소년 신용교육 교재인 '신용이머니(Money)'를 발간하고, 비디오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전국 4,700여개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문화 홍보를 위해 '청소년 거리문화축제' 행사를 전국 각 YMCA 지역본부별로 개최한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경제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소비체험 프로그램 및 신용활동도 점검 행사도 실시한다.

다. JA(Junior Achievement) Korea²⁵⁾

JA(Junior Achievement)는 1919년 미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청소년 경제교육 기관이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7,000만명의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교육 비영리 단체이다. JA는 청소년들의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위하여 자유 시장경제, 기업활동, 경제지식을 가르치고 경제의식을 고취시킨다. 기업에서 파견되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유치원에서 대학생

24)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www.ycredit.org).

25) JA Korea 홈페이지(www.jakorea.org).

에게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JA Korea는 2002년 10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J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JA Korea를 설립하였다. 시장경제, 기업경영, 경제이해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에 의한 경제교육, 다양한 그룹 활동 중심의 학생주도적 체험 학습, 경제개념 난이도에 따른 학습 수준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JA Korea는 2005년까지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3-11〉 참조).

<표 3-11> JA Korea 대상별 프로그램 내용

학교	내용	비즈니스	시민자격	경제	경영	기업윤리	금융이해	직업교육
초등학교	우리가족(Our Families) 1학년 ·우리가족, 우리동네 필요한 걸까요?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족이 하는 일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		●			●	●
	우리마을(Our Community) 2학년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도넛 만들기 ·세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	●	●			●	●
	우리도시(Our City) 3학년 ·도시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시설계사가 되어보자 ·음식점 주인이 되어보자 ·신문기자가 되어보자 ·은행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	●		●	●

〈표 계속〉

학교	내용	비즈니스	시민 자격	경제	경영	기업 윤리	금융 이해	직업 교육
초등 학교	우리지역(Our Region) 4학년 ·자원이 뭐예요? ·자원여행을 해보자 ·자원의 유통과정 ·기업의 수입과 지출 결정하기 ·머니 플로우	●		●				
	우리나라(Our Nation) 5학년 ·기업의 종류 ·기업의 자원 ·생산(볼펜 만들기 게임) ·마케팅과 광고 알기 ·나도 사업가!	●		●	●			
	우리세계(Our World) 6학년 ·교실 안의 세계 ·무역 알기 ·환율 ·국제마케팅 ·나도 국제사업가!	●		●				
중 학교	개인경제(Personal Economics)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탐색과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키우는 프로그램			●			●	●
고등 학교	기업경영(JA Company) ·실제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기업경영을 체험하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		●	●			●
대 학교	MMbiz(My Money Business) ·개인의 재정 계획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소년의 재무 설계 프로그램			●			●	●

자료: JA Korea 홈페이지(www.jakorea.org).

5. 국내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카드사태 이후 공공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사회기관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내용이 편중되어 있어 국민 전체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배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교육협의회 운영, 홈페이지 내 경제교육 사이트 개설, 경제교육 강좌 운영, 경제교육 자료 발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교육보다는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지역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지역청소년,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강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표준교육 프로그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강사풀을 통해 우수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교육실 운영,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2009년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금융교실 운영, 소비자단체 상담직원을 위한 금융교육, 실업자·농어촌 주민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주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특강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은 금융소외자 방문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교육대상이 제한되고 내용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용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그 외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도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금융교육포럼협의회(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기관(씨티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비씨카드, 삼성증권, 미래에셋), 언론기관(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사회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관기관(아이빛연구소, YMCA, JA Korea)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단기적, 장기적 차원의 단계적인 금융교육 내용 설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과 교육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용어집 발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금융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금융관련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 금융생활의 생존도구로서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업자, 농어촌 주민,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이해도 제고와 금융접근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국가적,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시범학교 방식에서 나아가 교육정책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 아래 공교육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노동식, 2009).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 높아지면서 공적 연금 수준이 급감하는데다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을 비롯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자금 설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2절 국내 금융교육 실태조사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배경 정보

국내 금융교육 실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2009년도 8월초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우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1,000부를 발송하여 총 345부가 회수되어 34.5%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평균소득, 거주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 수 345명 중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남자'가 65.8%로 '여자' 34.2%와 비교하여 많다. 연령별로 나뉘보면 '20대'가 31.0%, '30대'가 12.8%, '40대'가 21.7%, '50대'가 28.4%, '60대 이상'이 6.1%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직업별로는 '연구직 및 전문직'이 42.6%, '자영업' 5.2%, '서비스' 3.5%, '생산 및 제조업' 2.6%, '행정 및 사무직' 12.8%, '주부' 4.3%, '학생' 26.1%, '무직' 2.9%를 차지했다. 연구직 및 전문직, 학생, 행정 및 사무직 순으로 수치가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1.7%, '고졸 이하'가 29.6%, '대졸 이하'가 25.8%, '대학원 졸업 이하'가 42.9%이다.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상 평균이 고졸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응답자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별 항목에서 연구직 및 전문직의 비율이 많은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평균소득별로 보면 '150만원 미만'이 35.1%, '150-300만원'과 '300-450만원'이 각각 19.7%, '450-600만원'이 16%, '600만원 이상'이 9.6%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의 수치가 가장 높으나 150-600만원 사이의 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보아 연령별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태조사는 8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조사 특성상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 분류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도시' 거주 응답자는 67%이며, '농촌' 거주 응답자는 33%이다. 이와 같은 응답자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2>와 같다.

<표 3-1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27(65.8)
	여자	118(34.2)
연령별	20대	107(31.0)
	30대	44(12.8)
	40대	75(21.7)
	50대	98(28.4)
	60대 이상	21(6.1)
	연구직 및 전문직	147(42.6)
직업별	자영업	18(5.2)
	서비스업	12(3.5)
	생산 및 제조업	9(2.6)
	행정 및 사무직	44(12.8)
	군인	0(0)
	주부	15(4.3)
	학생	90(26.1)
	무직(구직자 및 은퇴자 포함)	10(2.9)
최종학력별	중졸 이하	6(1.7)
	고졸 이하	102(29.6)
	대졸 이하	89(25.8)
	대학원졸 이하	148(42.9)
평균소득별	150만원 미만	121(35.1)
	150-300만원	68(19.7)
	300-450만원	68(19.7)
	450만원-600만원	55(16.0)
	600만원 이상	33(9.6)
거주지별	도시	231(67.0)
	농촌	114(33.0)

2. 금융지식 수준

국내 금융교육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응답자들의 금융이해력 수준 정도, 금융지식 정보 경로, 금융교육 효과 인지 등을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 본 조사에 필요한 응답자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13〉 참조).

가. 금융이해력 수준 평가

청소년금융교육위원회에서 중학생(2007년도), 고등학생(2006년도)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측정 문제지를 활용하여 각 영역별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정답률이 높았으며 특히 '소득의 이해'영역은 정답률이 96.2%에 달했다. 반면 '지출과 부채 이해'는 정답률이 66.7%로 소득의 이해 영역과 비교하여 약 30% 낮았다.

<표 3-13> 금융이해력 수준 평가

구분		빈도(%)	비교
지출과 부채 이해	정답	230(66.7)	-
	오답	115(33.3)	
저축과 투자 이해 영역	정답	245(71.0)	-
	오답	100(29.0)	
소득의 이해 영역	정답	332(96.2)	65.42%
	오답	13(3.8)	
재무관리의 이해 영역	정답	246(71.3)	61.69%
	오답	98(28.4)	

주: 비교부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동일한 문항의 정답률임.

나.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앞의 각 영역별 4문항을 통하여 금융이해력 실제 수준을 산출한 결과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금융이해력 수준평균은 2.56점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4점 점수대에서 실제가 38.0%, 수준 인지가 9.0% 것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스스로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금융교육이나 금융이해력 등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학생들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해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14>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금융이해력 실제 수준	0점	1(0.3)	3.04
	1점	21(6.1)	
	2점	72(20.9)	
	3점	120(34.8)	
	4점	131(38.0)	
금융이해력 수준 인지	1점	47(13.6)	2.56
	2점	117(33.9)	
	3점	136(39.4)	
	4점	31(9.0)	
	5점	14(4.1)	

다. 금융지식 경로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어디에서 가장 많은 금융정보를 얻느냐’는 문항에는 ‘부모님이나 가정에서’가 10.4%, ‘스스로’가 60.9%, ‘금융전문가’가 5.5%,

‘학교’가 2.0%, ‘배우자’가 2.3%, ‘친구’가 4.3%, ‘동료나 동업자’가 13.3%, ‘기타’가 1.2%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에 달해 주로 학교나 금융전문가에게서 금융정보를 얻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또한 학생 응답자의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2%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금융정보에 관심 없음 등이 있었다.

<표 3-15> 금융지식 경로

(단위: 명(%))

구분	빈도(%)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36(10.4)
스스로(책이나 방송을 통해)	210(60.9)
금융전문가에게서	19(5.5)
학교에서	7(2.0)
배우자에게서	8(2.3)
친구에게서	15(4.3)
직장동료 또는 동업자에게서	46(13.3)
기타	4(1.2)
합계	345(100)

라. 금융교육 효과 동의 여부

금융교육의 효과 설명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 ‘그렇다’는 응답이 28.7%, ‘보통이다’는 응답이 40.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4%,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74.5%로 금융교육의 효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도 25.5%로 적지 않아 금융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금융교육 효과 동의 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
매우 그렇다	18(5.2)
그렇다	99(28.7)
보통이다	140(40.6)
그렇지 않다	74(21.4)
전혀 그렇지 않다	14(4.1)
합계	345(100)

3. 금융교육 현황 수준

금융교육 현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인지 유무, 금융교육 참여 유무, 금융교육 실시 기관 인지 유무, 금융교육 필요 정도, 금융교육 체제 운영 만족도, 금융교육 운영상 보완점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교육 인지 유무

금융교육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34.8%,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응답자의 과반수가 금융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교육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17> 금융교육 인지 유무

(단위: 명(%))

구분	빈도(%)
알고 있었다	120(34.8)
알고 있지 못했다	225(65.2)
합계	345(100)

나. 금융교육 참여 유무

경제·금융교육²⁶⁾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인 반면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금융교육 참여 유무

(단위: 명(%))

구분	빈도(%)
있다	40(11.6)
없다	298(86.4)
무응답	7(2.0)
합계	345(100)

26) 국내에서는 금융교육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 경제교육 내에서 금융교육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음.

다. 금융교육 참여 후 유용 정도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한 40명을 대상으로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2.5%, ‘그렇다’는 52.5%, ‘보통이다’는 27.5%, ‘그렇지 않다’는 7.5%,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참여한 대상이 전체 응답자의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무려 92.5%에 달하는 응답자가 경제·금융교육이 유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금융교육효과가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된 것과 같다.

<표 3-19> 금융교육 참여 후 유용 정도

(단위: 명(%))

구분	빈도(%)
매우 그렇다	5(12.5)
그렇다	21(52.5)
보통이다	11(27.5)
그렇지 않다	3(7.5)
전혀 그렇지 않다	0(0)
합계	40(100)

라. 금융교육 불참여 이유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298명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66.4%, ‘교육 활동에 대한 시간 부족’ 14.4%, ‘수강료 등의 경제적 부담’ 3.0%,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6.0%, ‘교육 장소와의 거리’ 4.4%, ‘기타’ 5.7%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66.4%로 다른 응답과 비교하여 절대적이었다. 이는 앞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을 확

대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우선시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표 3-20> 금융교육 불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198(66.4)
교육 활동에 대한 시간 부족	43(14.4)
수강료 등의 경제적 부담	9(3.0)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18(6.0)
교육 장소와의 거리	13(4.4)
기타	17(5.7)
합계	298(100)

마. 금융교육 실시 기관 인지 여부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사회기관, 민간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에게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표 3-21〉 참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관 자체는 알고 있을지라도,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가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교육시범학교’ 등의 정부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이 다음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어 다른 사회기관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단체의 경우 노력에 비해 ‘미래에셋’과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낮았다.

‘JA Korea’와 ‘아이빛연구소’와 같은 민간기관들의 경우는 인지도가 평균

3.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신한은행, 제일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전혀 모른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표 3-21> 금융교육 실시 기관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
금융감독원	103(29.9)
매일경제신문	89(25.8)
한국경제신문	84(24.9)
미래에셋	70(20.3)
한국은행	62(18.0)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58(16.8)
금융교육시범학교	56(16.2)
KB 국민은행	52(15.1)
전국경제인연합회	44(12.8)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44(12.8)
하나은행	27(7.8)
YMCA	27(7.8)
비씨카드	23(6.7)
씨티은행	21(6.1)
경향신문	19(5.5)
기타	19(5.5)
한국거래소	17(4.9)
JA Korea	14(4.1)
아이빛연구소	11(3.2)

바. 금융교육 필요도

금융교육의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35.9%, '필요하다' 51.0%, '보통이다' 11.0%, '필요하지 않다'가 1.7%,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0.3%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8%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금융교육 필요도

(단위: 명(%))

구분	빈도(%)
매우 필요하다	124(35.9)
필요하다	176(51.0)
보통이다	38(11.0)
필요하지 않다	6(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3)
합계	345(100)

사. 금융교육 만족도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체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0.6%, '만족한다' 4.6%, '보통이다' 38.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3.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3.6%로 나타났다(<표 3-23> 참조).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인 반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의견은 5.2%에 달해 우리나라 금융교육 체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 금융교육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빈도(%)
매우 만족한다	2(0.6)
만족한다	16(4.6)
보통이다	131(38.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49(43.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7(13.6)
합계	345(100)

아. 금융교육 보완 사항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인 홍보’ 50.7%, ‘시설 및 환경 개선’ 6.4%,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24.1%, ‘국가적인 금융교육 체제 확립’ 17.1%, ‘기타’ 1.7%로 나타났다 (<표 3-24> 참조).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과반수인 50.7%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금융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24.1%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비슷한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국가적인 금융교육 체제 확립도 17.1%로 나타나 금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내용적인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3-24> 금융교육 보완 사항

(단위: 명(%))

구분	빈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75(50.7)
금융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22(6.4)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83(24.1)
국가적인 금융교육 체제 확립	59(17.1)
기타	6(1.7)
합계	345(100)

4.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금융교육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금융교육 참여시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 선호하는 비용, 선호하는 장소, 선호하는 교육주체, 선호하는 내용, 선호하는 방법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교육 참여시 우선 고려사항

금융교육 참여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에 관한 질문에 '교육기간' 3.8%, '교육비용' 18.8%, '교육시설 및 장소' 13.3%, '교육내용' 49.9%, '교육방법' 12.8%, '교육강사' 1.4%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교육내용이 반수에 가까운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면 금융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교육 비용, 장소, 방법을 고려하며, 상대적으로 기간 및 강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금융교육 참여 우선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빈도(%)
교육 기간	13(3.8)
교육 비용	65(18.8)
교육 시설 및 장소	46(13.3)
교육 내용	172(49.9)
교육 방법	46(13.3)
교육 강사	5(1.4)
기타	0(0)
합계	345(100)

나.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비용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비용(1달 기준)에 관한 질문에 '무료'라는 응답이 과반수인 56.8%였다. 다음으로는 '5만원 미만'이 27.0%, '5-10만원 미만'이 14.5%, '10만원 이상'이 1.7%였다(〈표 3-26〉 참조). 응답자들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이 무료로 진행될 경우 참여도와 적극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면 5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비용

(단위: 명(%))

구분	빈도(%)
무료	196(56.8)
5만원 미만	93(27.0)
5-10만원 미만	50(14.5)
10만원 이상	6(1.7)
합계	345(100)

주: 1달 기준임.

다.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장소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장소에 관한 질문에 '금융교육 전문기관'과 '직장 내 사내교육'이라는 응답이 각각 29.6%와 28.7%의 근소한 차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 '주민센터나 구민회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를 차지했다(<표 3-27>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집에서 인터넷 활용' 등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금융교육에 참여할 경우 금융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사내교육이나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의 높은 응답률은 금융교육 참여에 있어 시간과 거리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7>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장소

(단위: 명(%))

구분	빈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65(18.8)
직장 내 사내교육	99(28.7)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70(20.3)
금융교육 전문기관	102(29.6)
기타	9(2.6)
합계	345(100)

라.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주체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주체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반수에 가까운 4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로 3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사회기관 및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은 각각 8.7%와 6.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민관기관'은 3.2%였다(<표 3-28> 참조).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응답자들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를 신뢰하는 운영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언론기관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것과 상이하다. 금융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주체

(단위: 명(%))

구분	빈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171(49.6)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112(32.5)
사회기관 및 언론기관	30(8.7)
교육기관	21(6.1)
민관기관	11(3.2)
기타	0(0)
합계	345(100)

마.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내용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저축과 투자 이해'가 26.7%, '소득 이해'가 23.1%, '재무관리 이해'가 19.6%, '지출과 부채 이해'가 17.3%, '은퇴자금 계획 및 운용'이 13.4%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응답자의 평균연령대가 30~40대인 만큼 저축과 투자 이해, 소득 이해와 같은 재산 운용에 관한 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9>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내용

(단위: %)

구분	빈도
저축과 투자 이해	26.7
소득 이해	23.1
재무관리 이해	19.6
지출과 부채 이해	17.3
은퇴자금 계획 및 운용	13.4

주: 순위별 누적 응답.

바.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교육 방법

금융교육 참여시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문강사 강연 및 토론'이 반수 이상인 5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모의상황 참여'와 '동영상 활용 강의' 등이 각각 21.2%와 14.2%를 나타냈다. '만화, 게임 등의 참여형 학습'과 '교재 강독'은 각각 5.2%와 4.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3-30〉 참조).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전문강사 강연 및 토론과 같은 기존의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상황 참여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 역시 흥미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영상 활용 강의의 경우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높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0>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교육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전문강사 강연 및 토론	189(54.8)
교재 강독	16(4.6)
모의 상황(시뮬레이션) 참여	73(21.2)
동영상 활용 강의	49(14.2)
만화, 게임 등의 참여형 학습	18(5.2)
기타	0
합계	345(100)

사.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방법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방법에 관한 질문에는 '일정기간, 정기적인 교육과정 참여'가 44.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회적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는 28.7%, '인터넷 활용'은 13.9%로 나타났다. 그 외 '단기간의 캠프 참여', '브로

슈어나 팸플릿 출판물 활용' 등은 각각 6.7%, 5.8%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3-31〉 참조).

응답자의 대부분은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회적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와 인터넷 활용 등과 같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시간과 거리 등 현실적인 여건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1>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1회적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	99(28.7)
일정기간, 정기적인 교육과정 참여	154(44.6)
단기간의 캠프 참여	23(6.7)
브로슈어나 팸플릿, 출판물 활용	20(5.8)
인터넷 활용	48(13.9)
기타	1(0.3)
합계	345(100)

아. 금융교육 대상

금융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에 관한 질문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각각 42.3%와 42.9%의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외 은퇴자, 특정계층, 취약계층은 각각 2.3%, 2.9%, 8.1%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표 3-32〉 참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금융교육이 학생과 직장인으로 대변되는 일반계층에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금융교육 수준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태 등과 같은 금융문제와 전 세계

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응답률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 금융교육 대상

(단위: 명(%))

구분	빈도(%)
학생	146(42.3)
직장인	148(42.9)
은퇴자	8(2.3)
특정계층(주부나 군인 등)	10(2.9)
취약계층(저소득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28(8.1)
기타	5(1.4)
합계	345(100)

제3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문제점 분석

1.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

가. 경제과목의 낮은 비중

기획재정부·KDI(2008)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사회과 경제영역의 수업시간 비중은 총 수업시간의 0.7%(31시간/4,692시간), 사회과 총 수업시간의 6.1%(31시간/510시간)에 불과²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능시험의 경제과목 응시현황 역시,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인문계 고교 2~3학년 교육)별 응시자 중 경제과목 응시자는 88,068명으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8차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시수가 감소되어 경제 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등학교 3~6학년까지 8.3%, 중학교 7.7%로 낮은 수치이다(〈표 3-33〉 참조).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통합 주제 형태로 경제 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원이 없으며, 고교 심화선택 경제과목 선택률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학교 학습만으로 미래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형편이다.

<표 3-33> 7차 대(對) 8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시수 편제 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제7차	66	20	10	96
제8차	45	20	6	71

자료: 전경련·한국교총(2008).

- 27) 일본의 경제 분야 수업시간과 우리나라의 국민공통기본과정 경제 분야 수업시간을 비교해보면,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 정도 많음.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음.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심화선택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흥미를 가진 학생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기회가 없음.
- 미국은 국민공통기본과정이 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교과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고등학교 경제과정은 우리나라의 심화선택 과정과 비교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경제 과목을 5단위(주당 5시간 수업)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주당 6시간 수업)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 수준임.
- 미국에서는 경제과목이 법에 의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K-12)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음. 특히 15개 주에서는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사회과목별 수강비율에 있어서 1998년의 경우 역사 91%, 시민과 정부 81%, 세계사 60%에 이어 경제가 46%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2은 경제에 대한 소양을 거의 갖추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및 '2009개정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2009.9.29) 등에서 경제교육 축소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문승래·정석민, 200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간'의 주요 내용은 <표 3-34>와 같다. 현재 일반 사회 선택 과목인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과목을 4개에서 2개로 축소함에 따라 경제과목도 축소된다.

<표 3-3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간'의 주요 내용

영역	교과군	교과목(예시)
탐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사회, 역사, 일반사회A, 일반사회B, 역사A, 역사B, 지리A, 지리B
	과학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주: 위 표에서 밑줄 친 과목은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향후 예시된 교과목에서 각 교과군 별로 3과목만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나. 교사의 전문성 부족

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사회과 교사와 도덕 및 기술·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경련·교총(2008)에 따르면 사범대학의 일반사회 전공이나 경제학 전공이 아니면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고 있어서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표 3-35) 참조).

<표 3-35> 경제교육 교사의 대학전공과목

(단위: 명)

전공	일반 사회	경제	지리	교육	행정	역사	법학	사회학	기타
교사수	352	86	68	43	42	30	29	24	73

주: 대상은 총 747명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p.3.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91% 가량이 학부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사회과 교사의 경우 역시 졸업 후 재직 중에도 경제 관련 내용의 학습기회가 크게 제약되어 있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다. 교과서의 오류

경제교과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번영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지나친 강조, 이윤추구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고 정부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36> 및 표 <3-37> 참조).

무엇보다 경제교과서가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 졸업 후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²⁸⁾ 경제교육협의회(2007)에 따르면 교사들도 경제과목이 사회과의 다른 단원 및 과목에 비해 교과서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경제 개념과 용어 설명이 부족하여 교과서만으로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10)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8) 05.10월, 재경부 등 5개 기관이 초·중고 경제 관련 교과서 및 지도서 117종을 검토하여 총 446곳의 오류 지적.

<표 3-36>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시장경제 및 기업 관련 내용 비교

구분	기존 교과서	전경련 발간 인정교과서
성장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는 빵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빵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A사. 사회3) ○ 자유경쟁으로 인해 자본가는 쉽게 부를 축적하였지만 임금노동자는 더욱 가난해지게 되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는 부의 격차가 점차 커졌다. (B사. 사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금전적 보상, 즉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자본가에게는 이자가, 기업가에게는 이윤이 경제적 인센티브이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p.40) ○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 경제성장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p.152)
성장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나 반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C사. 사회2) ○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빈부격차가 커지고 집단 갈등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D사. 사회3) ○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질까지 향상된 것은 아니다. --- 단순한 일을 반복함으로써 일하는 성취감을 맛보기 어려워졌다. (E사. 사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이 없으면 주어진 생산량을 여러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고 분배량을 늘릴 수 있다. (p.152)
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수입개방 관련한 내용 중 선생님 : 만약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나라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강한 무역 보복조치가 행해지거든. / 학생 : 선진국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이므로군요 (F사. 사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협정(FTA)등 국제거래가 필수적이다. (p.256)

〈표 계속〉

구분	기존 교과서	전경련 발간 인정교과서
기업의 이윤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사노라면' 改詞) 공급자는 언제라도 많은 이윤 노리지, 같은 물건 팔다 보면 서로 싸움 하더라. (G사, 사회3) ○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의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치 않고 벌이기도 한다. (H사, 사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므로,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이 될 수밖에 없다. (p.50) ○ 기업은 상품 생산으로 이윤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가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제품품질을 개선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p.47)
부(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수네 집이 몹시 어려울 때는 가족들이 화목했으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 가족간 대화가 줄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I사, 사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을 통한 생산량 증가는 물질적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삶의 질의 기본 조건으로 생각된다. (p.287)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이면 백화점들의 가격 파괴 행사 때문에 백화점 부근의 재래 시장들은 매출이 더욱 떨어져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J사, 사회3) ○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리거나, 대대적인 홍보로 새로운 기업이 아예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꾀방을 놓기도 한다. (K사, 사회3) ○ 일부 대기업들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여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L사, 사회3) ○ 기업이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여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도 불공정 경쟁에 포함된다. --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를 늘리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M사, 사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p.118) ○ 기업의 궁극적 역할은 생산활동이고, 기업의 모든 구성원 역시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소비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p.50) <p>《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서술 배제》</p>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p.6.

<표 3-37>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시장경제 및 기업 관련 내용 비교

구분	기존 교과서	전경련 발간 차세대 경제교과서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안정 면에서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라고 한다. (A사. 경제) ○ 기업이 지역사회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득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공해로 인한 피해나 지역사회가 지켜오는 전통문화의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B사. 경영대요) ○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경기 변동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C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체제는 개인들의 이기심을 활용함으로써 3대 경제문제를 해결한다. (p.49) ○ 시장경제체제는 ---(중략)---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므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낭비를 제거시켜 준다. (p.50) ○ 시장경제체제는 ---(중략)--- 생산요소를 배분하거나 할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경제체제보다도 효율적이다. (p.50)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화가 촉진되고 산업공해를 유발 시키게 되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공업화 위주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D사. 경영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한다고 하지만, 환경보호 역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p.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자칫 중복 투자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수요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에 과잉시설로 놀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E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중략)--- 부정부패나 정치적인 불안정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과 경제적 자유, 법질서의 확립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p.289)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나라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많이 얻지만, 농산물이나 자연 자원밖에 수출할 것이 없는 나라는 빈곤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F사. 경제) ○ 반세계화 세력의 목소리가 이처럼 다양하고 ---(중략)--- 그것은 바로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하는 것이다. (G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한 나라의 문제는 생산성이 낮고 경제적 토대가 미약하기 때문이지 세계화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p.370) ○ 북한의 경제상황은 남한보다 30~40년 정도 뒤진 1960~197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급자족과 자력 경쟁의 기치 아래 펴 온 폐쇄주의적 정책 때문이다. (p.386)

<표 계속>

구분	기존 교과서	전경련 발간 차세대 경제교과서
기업 경영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어디까지나 기업 형편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속한 문제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H사. 경제) ○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 (I사. 경제) ○ 자발적인 질서유지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J사. 경제) ○ 기업의 생존 기반은 바로 사회적 지지와 동의이다. --(중략)-- 윤리 의식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K사. 경제) ○ 지금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대개 대기업의 요구를 중소기업이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L사. 경영대요) ○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안일한 경영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기 보다는 환경을 파괴시키거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영을 해왔다. (M사. 경영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일까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중략)--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p.167) ○ 이윤극대화 행위는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들에게 많은 소득을 분배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략)--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p.181) ○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한다. (p.166) ○ 기업은 미묘한 소비자의 심리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경영 또는 기업가정신을 제4의 생산요소라고 부른다. (p.179) ○ 기업가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우선,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략)--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p.180-181) <p>《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기술》</p>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p.7.

2.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외 금융교육 문제점

가. 단기적인 성격의 금융교육

대부분의 정부, 금융기관, 언론사, 협회, 학회 등의 국내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형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나. 소극적인 금융교육 실행

“정규학교교육 외에서 학교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어디에서 가장 많은 금융정보를 얻느냐”는 문항에는 ‘부모님이나 가정에서’가 10.4%, ‘스스로’가 60.9%, ‘금융전문가’가 5.5%, ‘학교’가 2.0%, ‘배우자’가 2.3%, ‘친구’가 4.3%, ‘동료나 동업자’가 13.3%, ‘기타’가 1.2%로 나타났다. 답변 중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에 달해 주로 학교나 금융전문가에게서 금융정보를 얻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교육 인지 유무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34.8%,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다.

다. 적극성이 없는 금융교육 참여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²⁹⁾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인 반면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노력

29) 국내에서는 금융교육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 경제교육 내에서 금융교육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과반수인 50.7%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금융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교육 필요도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하다' 35.9%, '필요하다' 51.0%, '보통이다' 11.0%, '필요하지 않다'가 1.7%,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0.3%로 나타났다.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8%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금융교육의 내용 및 대상의 제한성

금융교육 참여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에 관한 질문에 '교육기간' 3.8%, '교육비용' 18.8%, '교육시설 및 장소' 13.3%, '교육내용' 49.9%, '교육방법' 12.8%, '교육 강사' 1.4%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이 반수에 가까운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에 관한 질문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42.3%와 42.9%의 근소한 차이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국내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의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으로 국한되어 전형적인 측면에서 모든 고객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교육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금융개념과 기초정보를 전달하는데 머물고 있다.

마. 금융교육방법의 다양성 미흡

금융교육 참여시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문강사 강연 및 토론'이 반수 이상인 5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모의상황 참여'와 '동영상 활용 강

의' 등이 각각 21.2%와 14.2%를 나타냈다. '만화, 게임 등의 참여형 학습'과 '교재 강독'은 각각 5.2%와 4.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전문가 강연 및 토론회와 같은 기존의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상황 참여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 역시 흥미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영상 활용 강의의 경우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높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방법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회적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와 인터넷 활용 등과 같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시간과 거리 등 현실적인 여건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교육 방법 역시 책자 발간 등의 평면적인 방식과 오프라인(현장 강의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멀티미디어 방식과 온·오프라인(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을 병행한 입체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 정부, 금융기관, 협회, 언론사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금융상품의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증가 추세는 본 연구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서 파악하였다.

금융교육은 비전문 일반인의 금융문맹에 따른 금융사기, 과소비, 과잉부채, 노년 빈곤 등 각종 피해를 줄이는 교육서비스의 일종이다. 서비스 증대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사. 금융교육에 대한 일관성 결여

현재 금융교육은 공공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협회,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주체 없이 실적위주의 교육, 중복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위주의 금융교육보다는 내실있는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금융 관련 협회와 기관, 학교 등의 여러 기관에서 인원 수 중심의 대단위 교육보다는 실질적이고 활용가능한 금융교육을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등 대상별 콘텐츠를 구성하여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조영석 외, 2008.).

아. 우수한 강사진 부족

금융교육전문가의 역량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교육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적합한 금융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가를 육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의 미흡으로 금융교육에 있어 우수한 강사진이 부족한 현실이다.

제 4 장

주요국의 금융교육 체제 분석

이남철 · 전현중

주요 선진국은 금융교육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금융교육은 국민의 경제 및 금융지식 수준을 향상시켜, 개인,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민간부문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 및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OECD도 국제금융교육 게이트웨이(IGFE)를 설치하여 금융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IGFE 자료³⁰⁾ 등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EU, 일본, 스웨덴, 호주)의 금융교육을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0) OECD 홈페이지(www.oecd.org) 내 IGFE 자료 참조.

제1절 주요국의 금융교육제도 및 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은 비영리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약 50년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경제교육전문조직인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전국경제교육자협회(NAEE), 경제교육재단(FTE),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등 민간조직도 금융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 역시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 정부 프로그램

1)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 프로그램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는 2003년에 설치된 정부 금융교육기관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교육국(US Treasury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이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지원 대상은 금융교육기관, 학교, 취약계층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수단과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서적, 상담전화서비스, 학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이다.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는 공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에 포함된 금융이해력 및 교육 개선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에 의거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미국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과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신용거래법은 재무부장관을 금융 이해력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19개 기관과 사무국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금융교육지원과 민간부문의 금융이해력 제고활동을 조정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 지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이해력과 능력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연방준비은행교육(Federal Reserve Education)

연방준비은행은 주 연방은행들과 공동으로 경제교육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 교사, 학생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수단과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뉴스레터, 출판, 전시회, 워크숍,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로 연방은행의 역할·기능 및 통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일반경제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주의 연방은행들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³¹⁾.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금융시장, 투자상품 및 투자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들의 개인금융이해력 향상과 교사들의 금융이해력 교육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은행챌린지(Fed Challenge)”는 고등학교 학생(Grades 9에서 12사이)을 대상

31) 주요 연방은행들이 제공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통화의 역사 및 제작과정, 지폐 각 면의 특징, 통화디자인, 위조방지정보 등 제공하는 Minneapolis 연방준비은행(FRB), Atlanta FRB, 8~12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격결정메카니즘 등 경제일반의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자료 제공 및 교사들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Boston FRB 등이 있음(김영기, 2002).

으로 하는 경진대회이다³²⁾. 이 활동은 미국경제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고유한 역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의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둘째, “은행순회 및 로비전시회(Bank Tours and Lobby Exhibits)”는 미국 내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의 본점과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연방준비은행들은 경제 및 연방준비은행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교사워크숍(Teacher Workshops)”을 개최하고 있다. 교사워크숍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과 미국경제의 통화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경제적 이슈를 연구하며 개인금융교육원칙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넷째, “에세이 콘테스트(Essay Contests)”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경제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세이 콘테스트는 쓰기능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사고를 제고하며 학생들이 경제적 개념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다섯째, “돈에 대해 알아보기(Money Connection)”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 비디오와 교육과정 패키지이다. 교재와 자료는 학생들이 화폐와 은행업무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경제 내에서 연방은행의 역할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돈에 대해 알아보기(Money Connection)”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준비은행에 접속해야 한다.

여섯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모의수업(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imulation)”은 학생들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를 하는 수업활동이다.

32) St. Louis FRB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의 역할과 기능, 일반 경제지식에 대한 경진대회(“Fed Challenge”)를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음. 경진대회를 통해 통화정책을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증진, 학생들의 연구·협력·발표·중요한 사고 기술 개발, 학교와 연방준비은행 참가은행간의 관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김영기, 2002).

일곱째, “국제무역 및 중앙은행업무(International Trade and Central Banking)”는 글로벌 경제 내에서 국제무역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계획과 학생활동이다.

이외에도 “경제학챌린지(Economics Challenges)”와 “라이프스마트 프로그램(LifeSmarts Program)”과 같은 학교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경제학챌린지(Economics Challenge)”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학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주, 지역 및 국가 단위의 경진대회이다. 퀴즈보울(Quiz-bowl)형식의 경진대회는 국가경제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NCEE)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지원하며, 선발된 일부 연방은행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라이프스마트 프로그램(LifeSmarts Program)”은 팀 단위의 경진대회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사적인 이벤트, 기술, 환경이슈 및 개인금융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라이프스마트 프로그램은 전국소비자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 NCL)이 지원하며, 선발된 일부 연방은행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이해력과 능력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전국보험관리위원협회(NAIC) 프로그램

전국보험관리위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보험 U(Insure 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인 전국보험관리위원협회(NAIC)가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NAIC는 50개 주, 콜롬비아지역(District) 및 미국전역의 보험감독관(Insurance Regulators)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년독신자, 신규가족(Young Families), 기존가족(Established Families), 무자녀 부부 등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도구와 내용은 웹사이트, 소비자가이드, 퀴즈 등이다.

프로그램의 주요목표와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이해력과 능력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세계은행(World Bank) 프로그램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은행 회원네트워크(World Bank Family Network, WBFN)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금융이해력훈련(Financial Literacy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전문제(Money Matters), 가족 예산수립(Family Budgeting),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첫째, 금전문제(Money Matters)는 금융이해력훈련(Financial Literacy Training) 교육이다. 교육기간은 약 5주간이며, 교재 및 자료 비용으로 25달러가 소요되고, 교육장소는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과 함께 WBFN은 원격교육 과정과 e-러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가계수지균형 방법, 저축프로그램개발, 금융전문용어교육, 주식시장작동원리,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읽기, 개인과 가족에 적합한 금융포트폴리오, 가족연금이해하기 및 인터넷을 통해 금융조사 정보 검색하기 등이다.

둘째, 가족예산수립(Family Budgeting) 프로그램은 금융로드맵개발(Financial Road Map)교육이다. 주당 한 단원씩 5주간 진행되며, 교재 및 자료 비용으로 25달러가 소요된다. 주요 목적은 참가자들이 체계적으로 금융관리를 하고 가계지출 관리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과정은 개인금융 계획 기초를 다지기 위해 다음에 대해 교육한다. 즉, 효율적인 기록보관, 예산수립, 지출내역파악, 부채상환, 금융목표수립, 저축과 투자, 순자산 기반구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교육이다. 약 6주간 진행되며,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주는 기초부문에 대해서 교육하며 나머지는 한 주에 한 단원씩

진행한다. 교재와 자료비용은 25달러이다. 저축의 필요성과 저축증가이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전반적인 금융문제와 연금계획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며,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5) 대통령 금융이해력 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프로그램

대통령 금융이해력 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는 2008년 1월 조지 부시대통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국민들이 금융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미국시민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각 산업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금융교육을 추진하도록 위원회에 과제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청소년과 직장의 성인들에게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혜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금융이해력 측정방법을 개발하며 금융지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는 일곱 가지 금전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 시민사회 프로그램

1) 개인금융이해력 점프스타트(Jump \$tart)

개인금융이해력 “점프스타트(Jump \$tart)” 프로그램은 1995년 시작하였다. 지원기관은 비영리, 기업 및 연방정부부의 180개 전국적 파트너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부문 지원기관으로는 메릴 린치재단과 HSBC가 있다. 교육대상은 학생, 교사, 어린이, 청년이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은 “점프스타트”의 주간 뉴스

레터 “파이낸셜 프라이데이(Financial Fridays)”와 “정보센터(Clearinghouse)”인데, 정보센터는 “점프스타트(Jump \$tart)”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와 연결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유치원부터 칼리지 연령대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에 대한 고취, 연구, 표준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금융이해력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점프스타트(Jump \$tart)”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직들의 전국적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적, 비디오, 지도자료 등의 다양한 교재를 대상학년별·키워드별·제목별·발행일별로 검색할 수 있는 DB를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이해력과 능력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고등학교 금융계획프로그램(HSFPP)

전국금융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금융계획프로그램(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 HSFPP)은 1984년에 설치되었다.

NEFE 외에도 협동 연구, 교육 및 공개강좌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USDA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랜드-그랜트 대학(Land-Grant University), 협동 공개강좌부(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전국신용연합협회(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CUNA), 미국신용연합(America's Credit Unions) 등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이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금융계획프로그램(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 HSFPP)은 일곱 개 단원의 학생교재, 교사안내서 및 역동적인 일련의 웹페이지로 구성되어있다. 웹페이지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료, 기사, 및 금융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HSFP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로그램 활동 및 금융 IQ증진을 위한 학생안내서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안내서는 사용하기 쉽고 유연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최고의 교수진과 금융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하여 50개주 전체 교육표준 및 다양한 전국적 주제-영역 표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원별 주제는 당신의 금융계획, 예산수립하기, 투자하기,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당신의 돈, 보험, 당신의 진로 등이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NEFE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현명한 금전관리(Smart About Money)” 프로그램

“현명한 금전관리(Smart About Money)” 프로그램은 전국금융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이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2005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주요 교육대상은 성인이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세우기, 부채 줄이기, 금융목표세우기 등에 대한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첫 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생애금융목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금융평가를 통해 학습희망 영역을 도출한다. 넷째, NEFE 금융이해력자료센터(Financial Literacy Resource Center)가 제공하는 미국전역의 많은 조직에 의해 작성되는 다양한 금융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명한 금전관리(Smart About Money)” 프로그램은 전국적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으로 미국국민들이 현명하게 금전관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캠페인은 NEFE가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국민들이 웹사이트(smartaboutmoney.org)에서 실용적인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금융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록 한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은 NEFE 등에 의해서 평가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캐쉬코스(Cashcourse)” 프로그램

“캐쉬코스(Cashcourse)” 프로그램은 전국금융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에 의해 운영되며, 2007년 8월에 시작되었다. 교육대상은 대학(College and University) 교수, 행정관료 및 학생이다.

교육수단과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와 웹사이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생애동안 지속될 긍정적인 자금관리습관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대학의 브랜드에 맞추어 구성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는 기초금융지식, 대학에 대한 지출, 대학 생활, 직업의 세계 등이다. e-메일 기사 또는 뉴스레터 기사, 마케팅 팸플릿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대학생들이 금융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NEFE 등에서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전국금융교육기금(NEFE)의 금융교육평가 “온라인 툴킷(Online Toolkit)”

전국금융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은 금융교육평가 “온라인 툴킷(Online Toolkit)”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온라인평가 툴킷은 금융교육자들이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문서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문서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금융교육자들에게 향후 금융교육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 툴킷은 두 가지 주요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평가개념을 설명하는 평가메뉴얼, 평가방법예시 및 평가툴킷을 완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 등이다. 후반부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형식을 위한 평가 팸플릿과 평가방식을 담은 평가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다. 민간부문 프로그램

1) 은행-기금간부연맹신용연합(Bank-Fund Staff Federal Credit Union: BFSFCU)의 금융교육자료 (Financial Education Resources) 프로그램
은행-기금간부연맹신용연합(BFSFCU)은 민간기구이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금융교육자료(Financial Education Resources)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직원들이다.

교육수단과 프로그램은 BFSFCU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금융교육자료이다.

첫째, BFSFCU는 무료교육세미나를 제공한다. 세미나에서는 주택구입과 매각, 온라인방호 및 재산관리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둘째, BFSFCU는 여러 가지 온라인 금융교육자료를 제공한다. 가정 및 가족금융센터(Home and Family Finance Center)는 금융계획수립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사를 보관하고 있다.

셋째, 젊은 직원을 위해서는 “구글플렉스(Googolplex)”라는 교육기사와 게임을 다루는 온라인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잡지는 BFSFCU의 젊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계획수립과 금전관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넷째, 디지털방어훈련센터(Digital Defense Training Center)는 신분도용, 온라인사기 및 다른 컴퓨터관련 신용사기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다섯째, 금융자립가이드(Guide to Financial Independence)는 금융자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법에 초점을 두고 재미있는 대화식 금융이해력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수표장의 결산에서 중고차 구입까지 다양한 금융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섯째, “머니믹스(MoneyMix)”는 18-30세 사이의 회원을 위해 금융수단과 정보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일곱째, “플랜잇(PlanIt)”은 예비퇴직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 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계획수립, 필요한 보험의 변경, 여행 및 레저계획수립, 소자본창업 등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니타임어드바이저(AnytimeAdvisor)”는 온라인 대화식으로 금융관련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폭넓은 금융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화식 영상코칭수업을 제공한다. 용어사전과 편리한 금융계산기를 이용 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BFSFCU는 회원들에게 안전한 금융의 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금융관리의 모 든 측면에 대해 회원들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이해력과 능력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시티그룹(Citigroup) 프로그램

미국의 시티그룹은 “지식이 최대 금융자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재 65개국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³³⁾ 그룹 내에 회장 직속으로 금융교육 총괄 부서인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 하여 금융교육 사업을 일원화하였다. 기존의 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 직원을 금융교육 강사 등에 활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전국공동재투자연맹(National Community Reinvestment

33) 시티그룹 금융교육 홈페이지(financialeducation.citigroup.com).

Coalition)과 제휴하여 금융교육 강사활동을 지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소외지역의 금융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직업훈련 및 알선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와일드캣 서비스재단(Wildcat Services Corporation)”과도 제휴하여 이들 수료자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수료자는 채용하고 있다³⁴⁾.

3) 전국경제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NCEE)

전국경제교육협의회(NCEE)는 1949년 대학 경영학부, 기업체, 각 단체와 함께 설립된 최초의 민간금융교육기관으로 미국 경제·금융교육의 중심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자를 위한 비영리 경제교육 기구로서 경제교육 교사훈련 및 교재개발에 있어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CEE는 경제이해력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을 전개하고, “경제교육센터(EconomicsAmerica)”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 주 연맹(300개 이상) 네트워크와 경제교육교사 훈련기관인 대학 경제교육센터(260개 이상)는 미국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기위한 범국가적인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약 12만 명의 교사를 교육시키며 이 교사들이 연간 약 7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기초 경제학을 교육하고 있다.

4) 전국경제교육자협회(NAEE)

전국경제교육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conomic Educators, NAEE)는 NCEE와 제휴된 경제교육자 전문 협회로서 각 경제교육센터에 소속된 경제교육 담당자들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간 개인당 40~50달러의 회비로 운영되며, NAEE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각종 회의, 출판, 시상 등을

34) 한국금융연구원(2008).

통해 회원의 전문성 제고(학문적으로 경제교육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와 경제 교육자들 간의 아이디어 교환 및 대화를 통해 정보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AEE는 모든 수준의 경제교육을 학술적으로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프로그램 촉진 및 지원, 경제교육자간 의사교환 강화 및 아이디어 교환, 제휴 연맹(NCEE) 및 센터 등을 통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평가업무의 밀접한 연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2001년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을 신설해서 금융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은행연합회(Canadian Bankers Association: CBA)는 청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기위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프로그램과 시민사회프로그램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가. 정부프로그램

1) 소비자교육 및 금융이해력교육: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 프로그램

캐나다 금융소비자보호원(FCAC)은 연방정부에 의해 2001년 설립되었으며, 금융이해력교육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기능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 관련 업무 수행”으로 그동안 연방기관들(OSFI, 재무부, CDIC 등)간에 분산되어 있던 소비자 보호수단을 통합·강화하고 소비자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³⁵⁾.

35) 김영기(2002), p. 22 참조.

FCAC는 제1차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2007~2009년 사이에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캐나다 청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FCAC는 현재 다양한 성인층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지브라운 대학(George-Brown College)과 시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지자체 조직을 통해 보급하려고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도구는 신용카드관리방법, 담보관리방법, 온라인은행가이드, 빈번한 질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책자발간 등이다.

FCAC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금융이해력 포털사이트 구축, 교사와 금융교육제공자를 위한 “도시(The City)”라는 국립학교용 자료개발, 청년을 위한 기초금융이해력교육 시범사업운영, 고교생을 위한 “당신의 돈(YourMoney)”이라는 수업 또는 과외 세미나 프로그램운영 등이 있다. 이외에도 FCAC의 청소년금융이해력 스터디, 교사포럼 등이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금융이해력 뉴스레터를 처음 발간하기도 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전국금융능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FCAC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CAC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금융능력구조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추진 및 정책 평가, 금융능력주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주도 및 감독, 프로그램협력 가능영역 발굴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금융이해력 사업의 전반적인 주도 등에 대해 협력을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금융이해력 및 금융능력구조의 개발은 “모든 캐나다인들이 금융기회 인식하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기, 알려진 내용 가운데서 선택하기 그리고 금융복지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할 것이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FCAC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전국금융이해력·능력 연구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8~29세 사이의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실태조사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 청년들이 예산을 수

립하거나 부채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개인금융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전국금융능력조사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재 지식을 평가하고 지식격차를 규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중인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FCAC의 장기적인 목표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갖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금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차 전국금융능력 컨퍼런스는 2008년 9월에 개최되었는데³⁶⁾,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컨퍼런스는 FCAC가 전략을 조정하고 주주의 요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미래의 금융기회와 현존 금융격차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FCAC는 추진하고 있는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사업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위임받았다. 2008-2009년 사이에, FCAC는 캐나다인적자원·숙련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와 함께 금융이해력교육평가 우수사례집을 개발하고 있다. 우수사례집은 2009년 가을 웹사이트에 탑재될 예정이다.

2) 캐나다 인적자원·숙련개발부(HRSDC)의 “CanLearn” 프로그램

정부기관인 캐나다 인적자원·숙련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는 “CanLearn”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CanLearn”사이트는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가 지방정부와 캐나다 학습 및 경력개발 조직들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캐나다 HRSDC는 보다 강하고 경쟁력있는 캐나다를 건설하기 위해 캐나다인을 돕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캐나다인들이 생산적인 삶과 보상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RSDC의 궁극

36) 제1차 전국금융능력 컨퍼런스는 2005년 6월 Ottawa에서 개최되었음.

적인 목표는 캐나다교육저축프로그램(Canada Education Savings Program, CESP)과 캐나다학생대출프로그램(Canada Student Loans Program, CSLP)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대중, 가족, 학생 및 어린이들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CanLearn.ca”는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위한 개인의 저축, 계획 및 지출을 돕는 웹사이트이다. “CanLearn.ca”는 교육저축, 학생대출, 장학금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정보 이외에도 학생과 가족이 교육관련 비용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캐나다학생대출프로그램(CSLP)의 지원내용, 중등교육이후 교육을 위한 자금지원 형태, 중등교육이후 교육의 금융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CanLearn.ca”의 목표와 요구는 캐나다인들이 중등교육이후 교육을 위한 저축, 교육선택 및 자금조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금융이해력 및 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숙련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함께 캐나다 금융능력 조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기초조사는 캐나다인들의 금융행동과 태도에 관한 중요한 지식격차를 보완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인들의 금융서비스시장 참여·교육과 퇴직을 위한 금융계획을 돕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격차를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퇴직을 위한 금융계획 지원 정부 프로그램에는 공인교육저축계획(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캐나다학생대출(Canada Students Loans), 캐나다교육저축장학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 캐나다학습보증(Canada Learning Bonds) 및 공인퇴직저축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등이 있다. 조사결과는 2010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다양한 캐나다 정부금융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onsumerinformation.ca”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업무국(Officer of Consumer Affaires)이 사업을 주도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NGO단체 등이 협력하고 있다. 소비자고발 지원, 생산품과 서비스의 비교 및 소비자 이슈 관련연구 등을 포함하며, 주택담보산정, 자동차임대·구매 산정, 일상 지출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퀘벡지역 금융시장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지원하는 사이트(www.lautorite.qc.ca)가 있다. 금융교육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영어와 불어로 제공된다.

2009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금융이해력을 위한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테스크포스팀의 설치 목적으로 5백만 달러를 편성하도록 재무부에 권고하였다. 2009년 봄에 출범한 테스크포스팀에는 비즈니스 및 교육부문, 지원봉사조직, 학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방사무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금융이해력에 대한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2009~2010년 사이에 2백만 달러를 배정하고 2010~2011년 사이에 3백만 달러를 할당하여, 2년간 총 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사업의 중요부분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명확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데 있다.

나. 시민사회프로그램

1) 캐나다 금융교육재단(Canadian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CFEE) 프로그램

캐나다 금융교육재단(CFEE)은 핵심 이해주체인 정부, 민간부문, 학교 및 교사, 지방자치단체 및 이민자지원조직 등과 협력하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일반대중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프로젝트(Building

Futures Project) 사업이다. 이 사업은 Manitoba지역과 협력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경제 및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북미지역 최초의 지역차원의 경제 및 금융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래컨퍼런스(Building Futures Conference) 사업이다. CFEE는 이 사업을 통해 캐나다 전역 및 전 세계로 경제 및 금융능력분야에 대한 개인과 조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한다. CFEE는 이를 위해 2008년 봄 몬트리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토론을 전개하였다.³⁷⁾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인들이 신뢰와 역량을 가지고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및 금융능력을 개선하는 지식과 숙련의 형성, 둘째, 정부, 민간부문, 학교 및 교사, 공동체서비스기관, 이민자지원기관 등 핵심 이해주체간의 협력, 셋째, 경력 및 직업계획, 의사결정 및 상호접근의 개선, 넷째, 기업관련 지식, 숙련, 태도 및 속성의 개발과 기업가정신 고려능력 제고, 다섯째, 자원, 정보, 도구, 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경제 및 금융교육 개선지원, 여섯째, 금융지식격차 규명과 금융지식격차분석 연구, 마지막으로 캐나다인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교육훈련과 자원을 제공하고, 교사와 지자체서비스제공자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경제 및 금융능력 향상노력과 우선순위의 제고, 둘째, 경제 및 금융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 마지막으로 우선 목표집단의 경제 및 금융능력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개발과 파트너와의 협력, 재능의 보급 등이다.

금융이해력 및 능력의 평가는 2008년 11월 캐나다 전국경제 및 금융능력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는 금융교육, 금융신뢰 및 금융지식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7) 이외에도 Online Classroom Edition of the Globe and Mail, Money and Youth, DayPlanner for Newcomers to Canada, Virtual Adviser, VRC Database, Vector, Catching the Wave, Mentors, Ventures, and Plans, Building Futures in Canada, Potential to Prosperity, Lesson and Learning, Big Picture, Canada's Economy, Entrepreneurship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캐나다은행협회(CBA)

캐나다은행협회(CBA)는 국내외 은행에 약 25만 명의 사원을 가지고 있는 은행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소비자인 캐나다청소년, 부모와 교사 등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CBA는 캐나다소비자들에게 소비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금융이해력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매년 웹사이트를 통해 약 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CBA가 주도하여 캐나다 청소년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윈스톱 온라인 교육수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웹포털사이트는 “당신의 금전 네트워크(Your Money Network)”를 위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수립에서 세금계산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청소년의 금융문제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는 캐나다 청소년이 캐나다 금융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청소년 자신의 금융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금전네트워크(YourMoney Network)”는 교실의 교사, 가정의 부모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학부모 자료(Parent Sneff)” 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흥미 있는 금전관련주제(여신, 창업, 수표 식별, 교육자금 조달 등)에 대하여 안내 코너를 운영하면서, 학부모에게 은행계정 및 타 금융거래방식 소개,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 소개, 은퇴이후의 금융설계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³⁸⁾.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제국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Commerce, CIBC)은 1,400 여 개 지점망과 41,000 명의 직원을 이용하여 1997년 은행 홈페이지(www.cibc.com/smartstart)에서 “현명한 출발(SmartStart)”이라

38) 김영기(2002), p.22 참조.

는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 게임 등으로 구성된 연령대별 콘텐츠와 학부모를 위한 지도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사회·기업 개발혁신(Social and Enterprise Development Innovations: SEDI)은 2008년 11월 캐나다 금융이해력센터를 개설하였다.

3. 영국³⁹⁾

가. 정부프로그램

1) 영국 금융감독국(FSA)의 국가금융능력전략 프로그램

영국 금융감독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학교, 청년층, 직장, 가족(새로운 부모)이다([그림 4-1] 참조).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 제공이다. 학교,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 내의 금융교육 보급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파트너십개발을 통한 금융교육 촉진이다. 국가전략의 우선영역 밖의 집단을 목표로 한다. 셋째, 온라인 도구를 이용한 금융교육 실시이다. 비교표, 부채 테스트 및 금융건강테스트 등이다. 넷째, NEET족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이다. NEET족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청년직무훈련이다. 다섯째, 새로운 부모 금융교육이다. 새로운 또는 예비부모를 위한 금융안내이다. 여섯째, 직장을 통한 금융교육 제공이다. 일곱째,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금융교육이다. 소비자 금융능력을 위해 출판 및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FSA가 국가금융능력전략을 주도하는 데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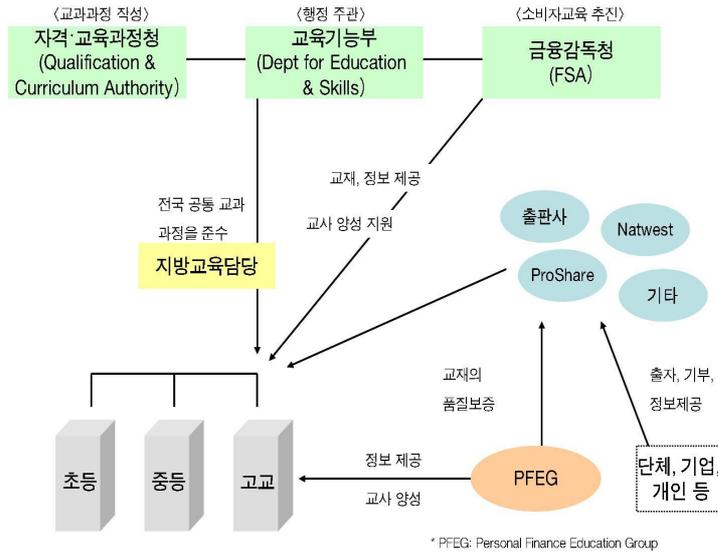
39) 민간 비영리조직·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금융·경제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온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육숙련부, 금융감독국(FSA)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금융·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교사 양성, 교재 및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2008년 7월 재무부와 FSA(금융감독국)는 2009년부터 4-19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다. FSA는 산업, 소비단체, 자원봉사조직, 정부 및 미디어와 같은 영국의 금융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이해관계주체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능력은 목표설정, 진로유지(keeping track), 계획수립, 생산품선택 및 정보수신유지 등을 의미한다.

금융이해력 및 능력의 평가는 2006년 영국의 금융능력구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FSA는 4~5년마다 금융능력조사(Financial Capability Survey)를 반복하고 있다. 다음 조사는 2010~2011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FSA는 성과측정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 보다 견실한 평가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첫째, 능력의 5가지 핵심영역에 대한 영국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다. 둘째, FSA의 업무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다 광범위한 국가금융능력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FSA의 업무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비용수익분석, 업무흐름평가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 영국의 초·중·고교 소비자 교육 구조



자료: 김영기(2002). p.14.

2) 영국 금융감독국(FSA)의 국가금융능력전략 교육프로그램

영국 금융감독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은 2005년 국가금융능력전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학교의 교사,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s)의 학생서비스담당자, 종합대학의 학생금전관리상담자 등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SA는 학교에서 핵심조직이 교사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교사와 학교는 모든 학생이 계획되고 일관된 개인금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FSA는 계속교육대학에서 학생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머니포라이프(MoneyforLife)”를 통해 금융교육보급 실행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FSA는 종합대학의 금전관리상담자가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신뢰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⁴⁰⁾. 첫째, 학교를 위해서 FSA는 영국내 금전문제학습(Learning Money Matters)을 위해 개인금융교육단(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로 하여금 학교와 교사가 개인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계속교육을 위해서 FSA는 ‘머니포라이프(MoneyforLife)’의 CD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선 학생서비스담당자가 학생 Finan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출발점을 삼을 수 있도록 한다. FSA는 파트너십 개발 Group대학의 담당자에게 정보 보급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종합대학을 위해서 FSA는 “머니닥터툴킷(Money Doctors Toolkit)”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금융능력을 보급하는 방법을 학생금융상담자들에게 알려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FSA는 학생금융상담자의 교육 훈련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금융이해력 및 능력의 평가는 2006년 영국의 금융능력구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 외부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FSA는 “머니메이드클리어(Moneymadeclear)”, “청년과 금전교육프로그램(Young People and Money Programme)”, “부모를 위한 금전가이드(Parent’s Guide to Money)”, “금융능력 온라인교육도구(Financial Capability Online Tools)”, “파트너십 개발(Partnership Development)”, “돈가장 많이 벌기(Making the Most of Your Money)”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 FSA의 경제교육 목적은 개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잘 알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필요할 정도의 금융지식, 재능,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경제교육은 우선 학생들이 예산수립, 소비, 저축, 투자, 여신 사용, 화폐가치 학습에 대하여 지식을 갖추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자신과 타인의 니즈를 이해하고 개인, 그룹, 가족,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도록 함. 김영기(2002) 참조.

3) 영국은행의 “파운드와 펜스” 프로그램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은 “파운드와 펜스(Pound and Pence)”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교사와 9~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다양한 교육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즉, “파운드와 펜스”는 교사와 9~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어린이들이 돈과 가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교구와 책자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이해력의 능력 및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의 정부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는 금융교육기금(Financial Education Fund, FEF)이 아프리카의 금융능력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차적 자금지원은 남부사하라 8개국(Botswana, Ghana, Kenya, Namibia, South Africa, Tanzania, Uganda and Zambia)을 위해 이루어졌다. FEF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저소득 계층의 금융능력 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시민사회프로그램

1) 개인금융교육단(PFEG)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인금융교육단(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은 독립금융교육자선단체로서 시민사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PFEG는 교육부문, 교강사, 금융서비스산업대표, 감독관, 정부부처, 소비자대표 및 비즈니스부문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학교의 어린이와 교사들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 정책 및 최신교육과정, 사례연구와 개인금융교육뉴스 등이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PFEG는 학생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추어 개인금융을 계획하고 가르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독립자선단체이다. PFEG의 임무는 학교를 떠나는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문제에 대한 신뢰, 숙련 및 지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PFEG는 교사와 학교 리더십팀에게 무료로 자료 및 전문가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PFEG는 또한 교육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부, 여론형성계층 및 핵심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이해력의 능력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의 금융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는 1879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헌장(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기관은 시민사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전 세계의 금융전문가와 영국 내 소비자(청소년 및 성인)이다.

프로그램의 도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는 130년 동안 금융서비스전문가들이나 금융산업에 진입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금융능력 및 이해력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는 초급 및 중급 개인금융증명서(Certificates), 금융연구증명서, 금융연구졸업증서(Diploma)를 수여하고 있는데, 주로 14~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에게 개인금융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 PFP)을 제공하고 있다⁴¹⁾.

프로그램의 목표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 금융능력자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개인금융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이 일상적인 금융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 지식 및 신뢰를 익혀 금융업무를 원만하게 관리하도록

41) www.fiscalcapability.co.uk

록 하는데 있다.

금융이해력 및 능력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학교(ifs School of Finance)”는 GCSE, AS 및 A 수준에 준하는 영국금융자격을 다양한 평가시험을 거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학교감독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민간부문프로그램

민간부문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는 “스코트캐쉬(Scotcash)” 프로그램⁴²⁾이 있다. “스코트캐쉬(Scotcash)”는 글래스고(Glasgow)시의회가 글래스고 주택 건설협회 및 Scotland왕립은행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스코트캐쉬(Scotcash)”는 유리한 대출이자, 은행구좌관리, 금융자문 및 가사용품할인정보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공 및 민간파트너와 협력하여 원스톱센터를 설치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코트캐쉬(Scotcash)” 프로그램팀은 세 명의 대출상당사와 두 명의 금전상당사 이외에도 관리직과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저금리대출, 은행거래 개시 및 저축구좌 개설을 알선해 줄 뿐만 아니라, 예산수립 및 부채관리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4,500명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약 1,500명 정도가 819,000파운드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319명은 기본적인 은행구좌를 개설하였으며, 140명은 저축구좌를 개설하였다.

이외에도 민간부문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프루덴셜(Prudential)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programme)”이 있다.

42) 스코트캐쉬 홈페이지(www.scotcash.net).

4.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경제교육을 중요시 해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경제적 소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⁴³⁾. 2004년 경제문화보급위원회(Conseil pour la diffusion de la culture économique, CODICE)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다루는 경제주제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조사대상자의 52%에 불과하였다. 프랑스에서 경제는 기업, 근로자, 시장, 공적활동의 일상과 실체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기관에서는 경제의 기초에 대해서 교육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경제를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40년 이상 경제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시민교육에 필수적이며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 메커니즘 지식을 습득하고 실험정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에서 경제교육은 전문적인 경제학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기업이나 행정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지식과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얻을 있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경제·금융·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⁴⁴⁾ 프랑스 리옹시가 중심이 되어 2008년 11월 정부기관, 프랑스 경제학회, 민간단체, 기업, 금융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경제심포지엄(Journées de l'économie)을 개최하여, 국민경제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홍보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2009년 11월 제2차 전국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43) 전 프랑스 수상인 Michel Rocard(1988년에서1991년 사이에 재임)는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제적 소양은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였음.

44) 200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46%와 청년의 48%가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가. 정부 프로그램⁴⁵⁾

1) 예금자 영역(Espace de l'épargnant)

금융시장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은 “예금자 영역(Espace de l'épargnant)”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에 투자한 예금을 보호하고, 투자자 정보를 지키며, 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2)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교육부 파트너십 프로그램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1995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대상집단은 일부 전공의 고등학생과 전문대학생이다. 특히,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전공영역 가운데 경제 및 사회과학(ES)전공과 과학 및 서비스산업기술(STT) 전공에 소속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문대학 수준인 “서비스산업 BTS(BTS tertiaires)”과정의 학생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 대상집단은 일반대중이다. 주요선택 대상은 고등학교의 바칼로레아 준비 전공영역 가운데 경제 및 사회과학(ES)전공과 과학 및 서비스산업기술(STT) 전공에 소속된 경제교과 교사들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은행시스템조직, 화폐 및 통화정책을 다룬다.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프랑스 국내외의 교사 16,000명과 학생 60만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랑스은행의 경제 전문지식을 평가하여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용자 가이드를 담은 영상물이 포함된다. 프랑스은행과 교육부의 파트너십은 교육감독관

45) 프랑스 정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은행, 경제문화보급위원회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기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작업 시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임.

(Inspecteur Pédagogique)과 교사실험집단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은 영상자료 및 인쇄물로 된 교육용킷(Kits pédagogiques) 제작이 중심을 이루었다. 교육용킷은 1996년부터 제작되었는데, 프랑스은행의 역할과 임무, 통화정책, 유로화, 화폐의 순환, 유로화시스템 등에 대해서 10여분 분량의 영상자료를 영어와 불어로 제작하여 수업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2005년 5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프랑스 은행은 금융부문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du Secteur Financier)를 설치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3) 교육부 프로그램

프랑스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는 각 급 학교에서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⁴⁶⁾

4) 경제문화보급위원회(CODICE)

프랑스 경제·금융·산업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는 경제문화보급위원회(Conseil pour la diffusion de la culture économique, CODICE)를 설치하여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문화보급위원회(CODICE)는 젊은 층을 겨냥하여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임, 퀴즈 및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6)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www.education.gouv.fr).

나. 시민사회 프로그램

1) “모두를 위한 금융(La Finance pour Tous)”

국민금융교육원(Institut pour l'Education Financière du Public, IEFP)은 2006년 “모두를 위한 금융(La Finance pour Tous)”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노동자, 노령자,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기구인 금융시장청(AMF)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프랑스 국민이 보다 나은 금전관리와 현명한 금융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금융관련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IEFP의 운영위원회에는 대학, 금융기관, 노동조합, 언론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2) 국립소비·조정원(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 la Coordination: INCC)

국립소비·조정원(INCC)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및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⁴⁷⁾

3) 소비·주거 및 생활환경(Consommation, Logement et Cadre de Vie: CLCV)

전국소비자협회(National Consumers Association)는 “소비·주거 및 생활환경(CLCV)”을 통해 소비·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4) 금융교육 프로그램(Financial education programme)

“금융과 교육(Finance & Pédagogie)” 및 프랑스저축은행회(French Savings Banks Group)는 1957년부터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75,000명이 참가하며, 매년 4,000개 이상의 교육훈련강좌가 열리고 있다.

47) www.conso.net

교육훈련대상은 청소년(16~25세), 금융지식역량 취약계층(저임금근로자, 실업자, 편부 또는 편모가족 등), 근로자 외에도 사회활동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중간영역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16~25세)은 금융관리(첫 월급 등) 및 일반적인 은행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복잡한 미래직업세계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식역량 취약계층(저임금근로자, 실업자, 편부 또는 편모가족 등)은 종종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채문제에 직면하거나 흔히 사회적·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예산관리, 퇴직계획수립 또는 예기치 않은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 필수품 아껴쓰기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금전관리훈련은 근로자의 신용을 세워주고 자율성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사회활동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중간영역근로자와 같은 다른 영역의 근로자들은 은행 업무에 대한 최신의 기술적 숙련과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금전문제와 가계예산수립에 대해 자문하기”와 “가계예산, 금전관계, 은행 및 지불방법, 소비자와 담보대출, 과다부채방지, 저축과 투자, 퇴직준비, 보험(사고, 생명)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훈련” 등이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금융과 교육(Finance & Pédagogie)” 훈련과정의 대부분은 예방적 기초 지식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집단인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했다. 교육 대상 집단은 사회단체, 교육단체 및 공공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단체는 사회 및 공동체센터, 청년근로자, 사회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도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등이다. 둘째, 교육단체는 대학과 성인교육센터 등이다. “금융과 교육(Finance & Pédagogie)”은 교사들에게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또, 주식거래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예비 사회적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셋째, 공공기구는 공공업무수행기관인데, 청년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예금, 지불방법 및 모든 금전문제에 관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금융과 교육(Finance & Pédagogie)”의 파트너들에 의해서 수행되며,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각 조직에서 작성한 설문지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으로 “금융과 교육(Finance & Pédagogie)”은 조사를 통해서 영향력, 적격성 및 파트너의 요구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달 정리되어 국가차원에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파트너의 지속적인 수요정도가 주요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5) 전국퇴직공무원저축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Fonctionnaire Epargnant pour la Retraite; ARCAF)

전국퇴직공무원저축협회(ARCAF)⁴⁸⁾는 퇴직공무원이 가입한 저축상품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다. 민간부문 프로그램

1) “은행, 나의 은행 그리고 나(La banque, ma banque et moi)”

프랑스은행연맹(Fédération bancaire française, FBF)은 “은행, 나의 은행 그리고 나(La banque, ma banque et moi)”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은행과 금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은행의 핵심(Les Clés de la banque)”

프랑스은행연맹(FBF)은 “은행의 핵심(Les Clés de la banque)”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나 전문가에게 은행과 금전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⁴⁹⁾

48) 전국퇴직공무원저축협회 홈페이지(www.epargneretraite.org).

49) www.lesclesdelabanqued.com.

3) 프랑스보험기업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es Sociétés d'Assurances; FFSA)
프랑스보험기업연맹(FFSA)은 프랑스의 보험제도, 보험상품, 기업과 보험, 사회 속의 보험 등에 대한 보험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⁰⁾

4) 상호보험기업단체(GEMA)
상호보험기업단체(Groupement des Entreprises Mutuelles d'Assurances, GEMA)는 기업의 육상, 해상, 산악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내 위험을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¹⁾

5) 퇴직자 공익단체 정보(GIP Info Retraite)
퇴직자 공익단체(Groupement d'Intérêt Public, GIP)는 퇴직제도와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²⁾

6) 주식학교(Ecole de la Bourse)
주식학교(Ecole de la Bourse)는 1997년부터 주식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 경제환경 등에 관해서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다.⁵³⁾

5.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 정부 프로그램

1) “돌체타(DOLCETA)” 프로그램⁵⁴⁾

50) 프랑스 보험기업연맹 홈페이지(www.ffsa.fr).

51) 프랑스 상호보험기업단체 홈페이지(www.gema.fr).

52) 프랑스 퇴직자 공익단체 정보 홈페이지(www.info-retraite.fr).

53) 프랑스 주식학교 홈페이지(www.ecolebourse.com).

54) 유럽위원회(EC) 돌체타 프로그램 홈페이지(www.dolceta.eu).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3년 경제 및 금융교육을 위해 “돌체타(DOLCETA)”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에 대한 교사훈련 모듈은 소비자 권리와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 소비자들의 지식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돌체타(DOLCETA)” 프로그램은 성인 수강자에게 금융문제를 교육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은 소비자 권리와 금융서비스의 두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소비자권리 모듈은 정보기사, 퀴즈 및 예시로 구성된 단원을 제공하며, 웹사이트와 관련정보를 연결하고 있다. 전체 단원은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8개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8개 주제는 판매계약, 가격표시, 원격판매, 광고, 상품안 전성과 서비스, 분쟁해결, 단일시장(Single Market) 및 특수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난이도에 따라 기초정보(Level 1), 세부정보(Level 2) 및 전문정보(Level 3)와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둘째, 금융서비스 모듈은 6개 과정을 67개 훈련강좌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금융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각 강좌는 해설, 용례 및 소비자이해도평가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각 강좌는 인터넷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개 과정의 주제는 가족 예산관리, 소비자신용, 은행계좌운영, 지불수단 및 저축과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은 난이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기초 금융서비스(Level 1),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중급 금융서비스(Level 2) 및 가장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고급 금융서비스(Level 3)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이해력에 대한 교사훈련모듈은 소비자권리와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 소비자의 지식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금융이해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007년 유럽연합 27개국에 대한 금융이해력 교육체계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면 “돌체타

(DOLCETA)” 프로그램은 이미 성인학습자에게 금융문제를 효과적으로 교육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유럽위원회는 2008년 초부터 교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교육모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교육전문가와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럽대학 계속교육네트워크(European Universities Continu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해서 추진된다.

이 “돌체타(DOLCETA)” 모듈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인터넷 훈련을 포함하는 준비된 교육킷(Ready-to-Use Kits)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금융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교육 자료는 국가문화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교사훈련모듈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팀은 각종 교사연수회에 참여하여 소비자교육 자료를 홍보하고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유럽 금융교육 데이터베이스(European Database for Financial Education: EDFE)

유럽위원회(EC)는 유럽 금융교육 데이터베이스(EDFE)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 유럽의 금융교육 방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⁵⁾

3) 금융이해력 증진방안 조사(Survey of Financial Literacy Schemes)

금융이해력 증진방안 조사연구(Survey of Financial Literacy Schemes)는 2007년 27개 EU 회원국의 금융이해력 증진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문헌을 소개 하였다.

나. 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프로그램으로는 금융교육 프로그램(Financial Education Programme)이 있다(〈표 5-1〉 참조).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유럽 금융자격검정기구(European Financial Certification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55)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esis/index.cfm.

이다.⁵⁶⁾ 유럽 금융자격검정기구는 16개 유럽국가의 18개 회원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회원조직은 국가 직업교육 및 훈련 보험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회원은 국가보험가입자협회 또는 국가보험고용주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된 비영리 조직이다.

유럽위원회는 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회원국의 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표준프로그램 확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표 5-1> EC 회원국들의 금융교육 실시 사례

주요사건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Non-banking Financial Sector), 중학생 대상, 교육부 지원, 금융청 주관 · Foundation Atnas Borov(은행업계 산하 비영리단체), InterAmerican Insurance, TBI Asset Management 등이 자본시장, 연금, 보험 등에 대한 교육과정 실시, 거래소 탐방 등 인센티브 제공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Economics for Success), Microsoft와 Accenture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 다양한 연령대 학생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교육 실시 · 프로그램(Banks in Action), Citigroup 후원으로 15~16세 연령층 대상, 대출과 소매은행 교육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Money and Pension panel), 젊은 성인층 대상, 은행협회와 보험연금협회 공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Learn to handle your money), 초등생 대상, Caixa Terrassa(저축은행) 운영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08), p.20.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금융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금융교육게이트웨이(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 IGFE)⁵⁷⁾를 설립하였다. IGFE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56) 유럽 금융자격검정기구 홈페이지(www.eficert.eu).

57) OECD 금융교육 홈페이지(www.financial-education.org).

첫째, 금융교육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금융교육 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교육 이슈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데이터, 자원, 연구 및 뉴스를 수집하고 있다.

둘째, 범세계적인 금융교육 이슈에 대한 인식 및 시각을 제고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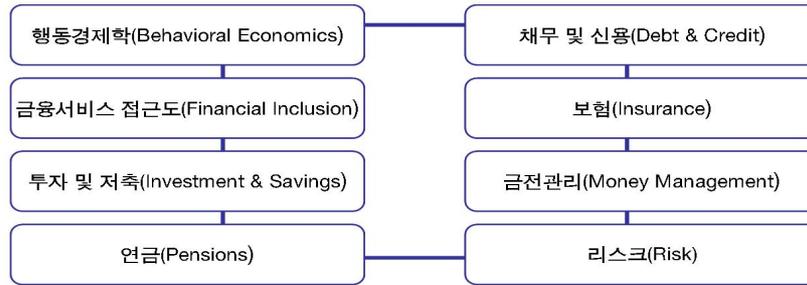
셋째, 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지식, 경험 및 전문가 의견을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넷째,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 대표기관 및 핵심이해관계자의 범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OECD의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OECD의 모범지원사례 및 원칙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한다.

IGFE는 국가 또는 지역별, 부문별, 주제별로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 등 62개국에 대한 금융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EU, 라틴아메리카 및 전체 일반에 대한 금융교육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가 또는 지역으로 나누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별로는 행동경제학(Behavioural Economics), 채무 및 신용(Debt & Credit), 금융서비스 접근도(Financial Inclusion), 보험(Insurance), 투자 및 저축(Investment & Savings), 금전관리(Money Management), 연금(Pensions), 리스크(Risks)와 같이 6개 주제로 나누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OECD의 금융교육 주제



자료: OECD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용웹사이트⁵⁸⁾를 개설하였다.⁵⁹⁾

7. 기타 주요국의 금융교육⁶⁰⁾

가. 일본

일본의 경제교육 수준은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교육계 전반에서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재 개발과 교사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교육은 “정부 주도-금융기관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지원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단체, 언론사, 소비자단체, 일본은행 부총재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금융

58) OECD 금융교육 홈페이지(www.financial-deucation.org)

59) 한국금융연구원(2008).

60) 일본,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금융교육 제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연구에서는 개략적 소개에 그치고 있음. 추후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각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홍보중앙위원회(金融廣報中央委員會)가 금융교육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며 금융청은 금융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교과서 개편에 맞추어 경제교육의 목표를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금융지식을 몸에 익힌 개인들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 관계자들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학교 경제교육이 저축을 강조하여 건전한 소비와 금융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의 투자자교육은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⁶¹⁾

나. 스웨덴

스웨덴은 오랜 사회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우선시 하는 실용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지는 않은 편이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경제인연합회(Conference of Swedish Enterprise, CSE)는 시장경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경제정보(Youth Communication)”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제와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테마데이(Theme Day)”는 4만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 경력을 위해 조언하는 1일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61) 김근영 외(2004).

그 밖에도 Wallenberg그룹 등 기업들이 “청소년 기업이해(Youth Enterprise)”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기업 전략과 사업계획 등을 직접 개발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다.⁶²⁾

다. 호주

호주 정부는 1999년 교육부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정부보다는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였다. 호주의 대표적 은행인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및 교사 대상의 금융교육 사이트⁶³⁾에서 “돈과 센스(Dollars and Sens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은행연합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돈에 관한 기초 개념 및 저축, 신용 문제 등을 다룬 초·중·고등학생용 금융교재인 “금전문제(Money Matters)”와 중·고등학생용 금융교재인 “돈에 대해 알아보기(More on Money)”, “사람과 은행(People and Banks)” 등을 발간하고 있다.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금융교육은 뉴질랜드 신탁기금(Enterprise New Zealand Trust: ENZT)의 “금융이해력 프로그램”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고 있다. ENZT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학교 외의 직업세계를 포함한 현실세계에 필요한 덕목으로 평가된 “기업가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교사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62) 김근영 외(2004).

63) 호주 커먼웰스은행 금융교육사이트(www.dollarsandsencse.com.au).

제2절 우리나라 금융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에 주는 시사점

세계 주요국은 금융이해력 및 금융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제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체제마련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금융교육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국민 경제 및 금융교육에 대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효과적인 금융 및 경제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반 국민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금융지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국민들의 가정경제가 안정되고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다져왔다. 정부의 독립적인 금융교육 및 연수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차원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금융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금융교육 효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금융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은행, 시민단체 등의 제휴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글로벌 사회를 맞아 기업의 경제교육에 대한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주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교육 수요자 계층별로 대상에 따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유소년층, 청년층 및 노령층 등 연령층에 따라 필요한 금융교육의 내용도 차별화해야하며, 학생, 소비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에 대해 금융교육연수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급 학교 교사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급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도 금융교육내용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전체가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이해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입시에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금융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금융교육교재 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강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금융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금융교육 패키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자치단체, 의회, 교육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제휴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금융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단위의 비영리 '미시적 금융 서비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국제경제발전과 금융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해 일부 선진국처럼 개발도상국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

이남철 · 조준모 · 전현중 · 김장희

제1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방안

1. 금융교육 정보(홍보) 전달 체계 확립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금융교육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과반수가 금융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298명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우선시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

여한 대상이 전체 응답자의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무려 92.5%에 달하는 응답자가 경제·금융교육이 유용했다고 응답하였고,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8%로 절대적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 전달체계 확보를 통한 홍보가 시급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금융교육 이해력 평가를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실태조사를 통한 금융이해력 측정에서 금융이해력 실제 수준을 산출한 평균이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금융이해력 수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금융교육이나 금융이해력 등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학생들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금융이해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공공 금융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교육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사회기관, 민간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에게 인지여부의 조사 결과 기관 자체는 알고 있을지라도,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가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교육시범학교 등의 정부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금융교육 참여시 선호 장소에 관한 질문에 '금융교육 전문기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이 금융교육에 참여할 경우 금융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금융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지식과 사례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과 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핵심 금융전공 교수진, 현장 실무형 금융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국제금융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 접근 가능한 금융 교육전문가, 금융실무를 이론과 접목하여 강의할 수 있는 금융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5. 다양한 교육방법과 대상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교육 참여시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문 강사 강연 및 토론'이 5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전문 강사 강연 및 토론과 같은 기존의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상황 참여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 역시 흥미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영상 활용 강의의 경우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높게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교육 전달 체제로써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활용 수단인 인터넷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물론 금융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금융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에 관한 질문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8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금융교육이 학생과 직장인으로 대변되는 일반계층에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금융교육 수준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태 등과 같은 금융문제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응답률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교육 수요자 계층별로 다양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소년층, 청년층, 주부, 군인 및 노년층, 퇴직자 등과 같은

계층과 연령에 따라 필요한 금융교육의 내용도 차별화해야한다. 특히 학생,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금융소비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6. 금융교육 내용 강화

금융교육 참여시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에 관한 질문에 '교육기간' 3.8%, '교육비용' 18.8%, '교육시설 및 장소' 13.3%, '교육내용' 49.9%, '교육방법' 12.8%, '교육강사' 1.4%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이 반수에 가까운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면 금융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지역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금융교육 패키지 제공 및 금융교육 기관들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금융교육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금융 소비자 단체, 지역주민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금융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단위의 금융교육기관의 파트너십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 강화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어디에서 가장 많은 금융정보를 얻느냐는 질문에서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에 달해 주로 학교나 금융전문가에게서

금융정보를 얻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또한 학생 응답자의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2%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OECD(2008)는 금융이해력 부족이 최근 금융위기의 심화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독립된 금융교육 관련과목 신설

각 급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도 금융교육 내용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전체가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이해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정규교육에서 독립된 금융관련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나.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초등학생과 같은 경우 용돈을 받는 방법, 은행통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금융 체험이 금융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각 급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금융기관 견학 등의 체험 위주 수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급 학교에 금융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학교은행” 설치와 같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천규승, 2009).

무엇보다 금융에 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급 학교 교원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원에 대해 금융교육 연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절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1. 금융교육체제의 의의

금융교육은 돈 벌기(Making Money), 돈 모으고 키우기(Placing of Money: Saving and Investment), 돈 빌리기(Raising of Money: Borrowing), 돈 쓰기(Expenditure), 돈 나누기(Donation)에 관한 정보, 지식, 지혜, 관습과 철학 및 사상을 함양 및 체화시키는 것이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금융이슈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금융기회 인식, 금융위기에 대한 도움요청, 금융상품의 현명한 선택 등을 통해 그들의 금융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금융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이 금융교육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피교육대상자의 금융지식 및 역량수준이 여러 요인에 의해 차별적이어서 차별적인 교육 내용과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은 경제금융 일반분야, 가계 경영 분야, 자산관리 분야, 부채 관리 분야, 사회봉사와 기부 분야 등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다.

피교육대상자의 금융지식 및 역량 수준의 차별성은 교육의 정도, 경험의 정도, 관심의 정도, 연령수준, 성별 등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의 내용에 대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경제금융교육은 정치경제학적 견해와 입장에 따라 경제현상과 본질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서 사회 통념적이고 체제 정합적인 교육내용의 체계화와 통일화가 필요하다.

2. 현행 금융교육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교육주체

금융교육의 교육주체로서 교육담당기관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금융기관 등 매우 다양하고 이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의 가치중립성, 품질일관성 등이 유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담당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 방법과 내용의 가치중립성 확보, 집중적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각 금융교육기관별 금융교육 담당자는 교육 가능한 잉여인력 등이 활용되고 있고 품질관리 및 재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담당자의 일정자격 관리, 품질관리 및 재교육 관리 등을 위한 집합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교육 담당기관들의 역할 분담(교육 대상별, 내용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와 더불어 금융교육 참여기관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효율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교육에 대한 적절한 자세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 등의 학습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등의 참여교육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저소득층·주부·다문화 가정 등과 같은 취약계층 및 특정집단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금융교육의 피교육대상자는 처음 또는 여러 번의 교육기회를 접하는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피교육대상자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금융교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장시간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교육 내용의 체계화와 통일화를 바탕으로 가치중립적이고 균질적이며 피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이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교습법의 개발 및 관리, 교육담당자의 수준별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 금융교육 전달 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TV, 라디오, 인터넷, 책자, 세미나 등 교육대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는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단체 등의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 전문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교육 전달 체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교육에 대한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둘째, 금융교육에 대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셋째,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금융교육에 대한 광고를 홍보한다. 다섯째, 책자 등 자료 배포를 통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금융교육에 대한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제3절 새로운 금융교육지원 체제 모형

1.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 설치 및 운영

금융 교육 대상자 수준 및 니즈별로 다양한 금융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상위 수준의 금융교육 강사의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할 국가 기관단위의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 이 기관에서는 정규학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금융교육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기관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금융현상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금융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와 연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시대의 변화추세에 따른 새로운 금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및 연수를 수행한다. 한국 금융교육이 당면한 금융교육 제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금융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금융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금융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부족한 학교금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감독원, 2009.10.21)⁶⁴).

64) 현재 금감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삼성증권,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삼성화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12개 기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기관은 상시 참여 가능함.

2. 금융교육 품질 국가 공인제 실시

금융교육의 세부영역을 예컨대, 금융 총괄 부문, 자산의 관리부문, 부채관리 부문, 가계경영 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등 금융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한다. 이들 부문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하여 금융교육 내용 및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금융교육의 내용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의 중심적인 기능을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국가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성 내 금융교육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감독청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모든 국민이 유치원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 국가 금융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3. 금융교육 강사 자격 국가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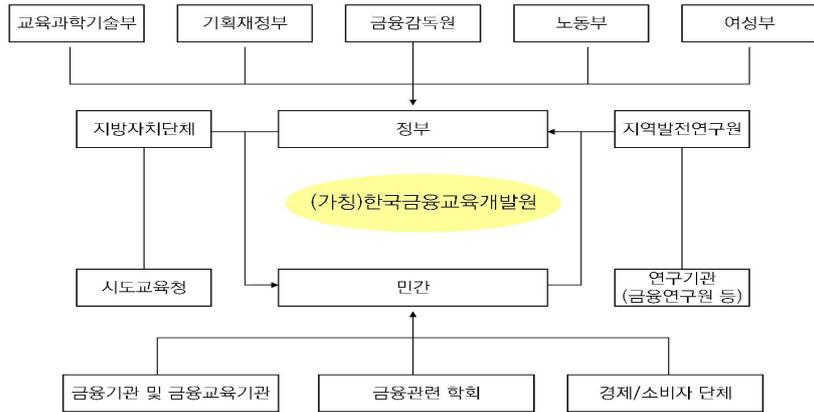
금융교육을 담당할 강사에게 일정 수준의 자격검증을 통하여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교육 내용, 방법의 균질화와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 이러한 인증제는 수준별 자격증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의 관리를 “(가칭) 한국금융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4.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통합 운영 체제

정부가 금융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 장단기 금융교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NGO 등과 네트워크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림 5-1]은 국가 차원의 운영

체계를 통한 구축 방안을 제시 한 것이다.

[그림 5-1] 국가 차원의 운영체계 통합 구축(잠정 예시 안)



가. 금융교육 파트너의 중요성 및 제도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흡한 금융교육의 문제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앞장서야겠지만 더불어 모든 경제 주체들도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법률 9409호, 2009. 2. 6 제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경제교육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경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경제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5월에 이 법에 따라 (사)한국경제교육협회⁶⁵⁾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실제 미국의 경우 민관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Public-Private Financial Education Partnership)가 금융교육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융교육 지원 법안 제정, 금융교육 커리큘럼 정비,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후원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금융교육 교재 개발, 강사양성 등의 세부 프로그램은 금융기관, 소비자보호단체, 대학 및 연구단체 등이 주도하는 형태이다.

실례로 미국의 대표적 금융교육 기관인 Jump\$tart에는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구와 함께 소비자연합회(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뉴욕주립대, 걸스카우트 연맹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구인『금융교육연합회(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 역시 금융서비스청(FSA), 은행연합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 금융교육 파트너의 역할

우리 역시 정부, 금융기관, 민간교육단체 등 경제 각 주체가 각자 금융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65) (사)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설립목적임. 회원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소비자원, 한국개발연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학관련기관연합회, 한국경제법학회 등 20개임.

1) 정부 당국자

정부정책 담당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정보를 획득을 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를 적기에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민들이 금융이해도 제고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식개발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노형식, 2009.).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개국 회의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 동안 G20개국 회의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생각도 못한 부자나라들의 행사였다. 국제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이를 계기로 G20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융부문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개인의 만족도 제고라는 금융교육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경기회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향상시키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전 부처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지식 함양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금융관련 지식을 따로 배울 기회가 없는 이과나 전문계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가 금융문제와 부딪치게 되므로,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역시 금융교육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노동부의 다양한 직업훈련 실시 시 일정부분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부에서의 군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식 함양 프로그램은 교육 수월성과 효과성 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일부 군부대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장기연체나 신용불량 문제를 중심으로 장병들

에게 신용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 중이지만 많은 부대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교육정착을 위한 민간연계의 금융교육 추진체제로 정부는 금융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입법 제정 등을 통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협회

민간 금융기관은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무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권유의 적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교육 필요성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전환,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역할 분담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상품 및 제약 조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 등 NGO는 금융교육 정착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언론은 금융문맹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여론 주도, 선진국 금융교육 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박철, 2003).

2007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금융교육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그림 5-1] 참조). 이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 등이 조율되지 못함에 따라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됨을 인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사한 프로그램(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재단, 한국거래소), 유사한

교재(한국은행의 “금융생활 길라잡이”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이야기”) 등이다.

3)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금융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체 구성, 운영, 공공 금융교육훈련 투자,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조례 제·개정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및 금융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 주체들 간의 사업간 연계 및 조정, 협력 도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금융교육 전략 수립, 전문 금융인력 양성 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연구원은 지역이 안고 있는 금융교육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안정되고 영속적인 금융교육 분야 협력 도출, 업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금융역량 증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청이 금융교육을 위해 추진할 핵심과제는 지역주민의 금융지식 역량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강화이며 금융교육관련 사업의 확대로부터 시작된다. 시·도 교육청의 물적·인적자원과 정책역량을 학생과 학교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쌍방향 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는 학교와 학생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결과 학교교육 및 금융교육의

결과가 개인차원에서는 고용으로,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문화와 산업의 발전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간의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대학 및 연구기관

대학과 연구기관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찍 은퇴한 근로자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평생학습이나 해직근로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신용관리 및 고령화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향후 추진 방안

본 연구는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한 기본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은행 등에서 다양하게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의 중복성과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 금융기관, NGO, 언론사, 학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활용하여 금융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향후 금융교육 대상별로 요구되는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금융교육 지원체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이남철

본 연구는 금융 지식 함양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지원 체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금융지식 함양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 금융이해력(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2005년과 2008년 2차례, 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은 2003년, 2006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 삼성경제연구소 경제교육 설문조사 결과 분석, 미국 NFCC의 2009년도 소비자 금융이해력 조사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경제교육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많은 선행 연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체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언론기관 및 사회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한 금융교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EU, OECD, 일본,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에서 국민들의 금융교육 함양을 위한 내용 및 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문헌 파악을 통한 심층적인 이론적 분석 뿐만이 아니라 제한적인 표본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금융상품

과 신용 등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은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급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원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금융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금융협회 등과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인 협력·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동안 금융교육은 정부와 민간, 금융관련 기관 등 각각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교육에 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금융교육이 국가적·정책적 체제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SUMMARY

A Study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cy Financial Education System for Strengthening Financial Knowledges

Namchul Lee Hyun-Jung Jun
Joon-Mo Cho Jang-Hee Ki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cy financial education system for enforcing financial knowledg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eek to provide alternatives or ways to improve financial education.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to helping consumers make appropriate decisions with respect to financial circumstances and risk. The major study method were the previous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y review, the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case study of U. S. A. U. K. EU countries.

As the financial industry is evolving into a more knowledge-based industry.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will depend on having financial professionals with skills in risk-management,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accommodation of customer needs, and diversification of income sources. According to a our survey in 2009, attracting financial talent with a global perspective

and insight was deemed to be the most urgent and essential eleme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es, citizen of Korea. In response to this increas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the Korea need to establish a financial education system to improve financial knowledges.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urnished by small,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e, and consulting companies were reported to be unsystematic and not well-structured enough to train financial talent which is required by the market.

In order to support the policy of MCHRD, and to enable to development of appropriat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a number of things; integration into the Korean society does not mean assimilation-MCHRD need to be enabled and supported in maintaining their culture, a legal framework which provides redress for discrimination is critical in ensuring that MCHRD are treated equal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at all level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on broad societal attitudes as well as on the problems of individuals if multiculture family are to come feel at home in their new society.

〈부 록〉

〈부록 1〉 경제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부록 2〉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고등학생/2009)

〈부록 3〉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초등학생/2008)

〈부록 4〉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중학생/2007)

〈부록 5〉 금융교육 실태 설문조사

〈부록 1〉 경제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기획재정부)

[시행 2009.5.7] [법률 제9409호, 2009.2.6, 제정]

제정이유: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관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40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5.7] [대통령령 제21469호, 2009.5.6, 제정]

제정이유: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④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2.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상일 것
 3.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1.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능력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주관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업무를 주관기관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주관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69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_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고등학생/2009)

청소년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지

2009년 7월

다음은 여러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알맞은 문항을 골라 답해 주십시오.

1. 다음 중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1) 직불카드
 - 2) 신용카드
 - 3) 양도성예금증서(CD)
 - 4) 수표

2.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는 세금이다
 -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6%이다.
 - 3)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4)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가격을 세액만큼 더 비싸게 한다.

3.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2) 비과세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 3) 고액의 이자소득액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
 - 4) 18세가 지날 때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4. 길동씨는 고향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길동씨가 살고있는 지역의 영업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

다면 길동씨나 길동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1) 길동씨의 월급이 많이 올라 높은 세금을 상쇄시킬 것이다.
- 2) 세금인상은 길동씨의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3) 높은 세금으로 인해 회사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오를 것이다.
- 4)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깎이거나 실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대학학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할 때 대출이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싼 대출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 | | |
|-----------|-----------|
| 1) 은행 | 2) 신용카드사 |
| 3) 신용협동조합 | 4) 상호저축은행 |

6. 수빈이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0만원을 내년에 대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모두 저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 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저축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 | |
|------------|--------------|
| 1) 주식투자 | 2) 펀드투자 |
| 3) 은행 정기예금 | 4) 이웃에게 빌려주기 |

7. 다음의 상황 중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1)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 차를 사야할 때
- 2) 사고 싶은 옷을 할인 판매하는 중일 때
- 3)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더 클 때
- 4) 휴가를 꼭 가고 싶을 때

8. 다음은 개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중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자신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2) 언제든지 연체된 대출금을 갚는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 3)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 4) 백화점 구매대금이나 통신요금의 연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선우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때 선우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입은 손해(차량파손)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 1) 자동차종합보험
 - 2) 책임보험
 - 3) 생명보험
 - 4) 종신보험
10. 이기동씨와 고다해씨 부부는 아이출산을 기념해 아이의 대학교육에 쓸 자금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을 18년 동안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투자안은 어느 것일까요?
- 1) 채권투자 상품
 - 2) 보통예금 상품
 - 3) 정기예금 상품
 - 4) 주식투자관련 상품
11. 만일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신용문제상담기관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1)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줄 기관을 소개받는다.
 - 2)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준다.
 - 3) 본인의 승낙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 4) 대출기관과 상의하여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새로운 부채상환계

획을 세워준다.

12. 다음 중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1)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거래시
- 2)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 거래시
- 3)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거래시
- 4)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시

13. 지영이는 매달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아 월세로 60만원,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로 40만원, 옷값으로 20만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2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1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지영이가 여유자금으로 부족한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모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 1) 9 개월
- 2) 10 개월
- 3) 11 개월
- 4) 12 개월

14.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저축합니다. 다음 중 비상자금으로 쓸 돈을 저축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1) 연금저축 | 2) 보통예금 |
| 3) 정기예금 | 4) 수익증권 |

15.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에서 가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투자방법은 무엇일까요?

- 1) 10년 만기 국공채
- 2) 양도성예금증서

- 3) 5년째 불입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 4)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부동산
16.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았다면 앞으로 신용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용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1)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2)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가급적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 3)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17. 개인이 일을 해서 버는 총소득 중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총소득에서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총소득 보다 적습니다. 다음 중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2)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3)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 4)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보험료
18. 다음은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사용하는 현금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1) ATM을 통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한다.
 - 2) 현금카드가 있으면 수수료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 3) 현금카드가 있으면 ATM을 통해 통장잔액이나 입출금 정보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 4) ATM이 있는 곳에서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24시간 언제나 현금을 찾을 수 있다.
19.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은 다음 중 어느 가정일까요?
- 1)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하고 있는 나이든 맞벌이 부부
 - 2) 고정된 은퇴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부부
 - 3) 자녀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
 - 4) 자녀가 있는 젊은 맞벌이 부부
20.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신고를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1)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
 - 2) 신고시점 이후에 제3자가 이용한 현금서비스
 - 3) 카드회원의 동생이 사용하다 카드를 분실했던 경우
 - 4)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고 분실했던 경우
21. 재원씨는 25살부터 은퇴자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동갑내기인 승현씨는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같은 금융상품에 저축을 하였다면 이들이 75세가 되었을때 누가 더 많은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 1) 승현씨. 왜냐하면 매년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 2) 둘 다 불입한 돈이 같기 때문에 은퇴자금이 같다.
 - 3) 재원씨.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4) 재원씨, 왜냐하면 저축액이 더 오랫동안 복리로 붙어났기 때문에

22. 다음 중 근로소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1) 자격증
- 2) 직업
- 3) 교육수준
- 4) 재산

23. 다음 중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의 금융 회사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은퇴소득은 무엇입니까?

- 1) 퇴직연금
- 2) 개인연금
- 3) 고용보험금
- 4) 산재보험금

24. 철수씨는 대학재학 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년 1,000만원을 벌었는데 졸업 후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철수씨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대학재학시와 비교할 때 어떨까요?

- 1) 더 적게 낼 것이다.
- 2) 같을 것이다.
- 3) 조금 더 많이 낼 것이다
- 4) 최소한 2배 이상 더 낼 것이다.

25. 우빈과 준표는 입사동기로 같은 조건의 신용기록을 갖고 있고 급여도 같습니다. 우빈은 자동차를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준표는 해외로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금액을 대출 받았다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어떨까요?

- 1) 둘 다 거의 같은 재정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같을 것이다.

- 2)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준표의 대출금리가 더 낮을 것이다.
 - 3) 자동차는 대출의 담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빈이의 대출금리가 더 낮을 것이다.
 - 4) 대출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다.
26. 다음의 신용카드이용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카드대금을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은 금융비용(수수료)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매달 신용카드청구대금의 최소금액만 결제하는 연주
 - 2) 매달 신용카드청구대금의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여유가 생기면 더 결제하는 현정
 - 3) 보통은 신용카드청구액을 전액 결제하지만, 현금이 부족할 때는 청구액의 일부만을 결제하기도 하는 민규
 - 4)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즉시 전액을 결제하는 민수
27. 다음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생명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1) 자녀가 없는 젊은 독신 여성
 - 2) 부인과 함께 일찍 은퇴한 남성
 - 3) 자녀가 없는 결혼한 젊은 남성
 - 4)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독신 여성
28. 다음 중 20-35세 연령대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일까요?
(3)

- 1) 사업소득
- 2) 임대소득
- 3) 급여나 임금
- 4)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29. 민수와 진규는 입사동기로 월급여도 같습니다. 민수는 여유시간에 전산 지식을 배우는 등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반면, 진규는 여유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민수와 진규의 앞날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예측은 무엇입니까?

- 1) 민수는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현재 직장에서 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 2) 진규는 민수보다 사교적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 3) 둘 다 계속 같은 돈을 받을 것이다.
- 4) 민수는 전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진규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30. 수정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 다음 중 은행의 대출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1) 수정씨가 A 은행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기록이 B 은행의 대출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 2) 수정씨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수정씨의 신용기록을 알기는 어렵다.
- 3) 모든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만일 수정씨가 A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 4)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2년이 지났다면, 대출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록 3〉_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초등학생/2008)

청소년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지

2008년 7월

주 관 : (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 원 : 금융감독원·매일경제신문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최현자 교수(소비자학과)

● 다음은 여러분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알맞은 답변을 하나만 골라 써 주십시오.

1. 다음 중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
 - ①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 ②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세금을 낸다.
 - ③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 ④ 물건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철수는 어른이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보았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슈퍼마켓 아저씨 : “자격증이 있어야 해. 가능한 많은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거라.”
 - ② 문방구 아주머니 :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 ③ 삼촌 : “전문직에서 일하는 것이 좋지.”
 - ④ 옆집 누나 :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최고지!”

3. 5,000원을 가지고 있는 준서는 4,000원하는 동화책도 사고 싶고, 3,000원하는 요요도 사고 싶습니다. 다음 중, 준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
 - ① 1주일 후에 있을 독후감 숙제를 위해 필요한 동화책을 산다.
 - ② 가지고 싶었던 요요를 산다.
 - ③ 내가 좋아하는 희진이에게 동화책을 사준다.
 - ④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동화책과 요요를 다 산다.

4. 다음 중 신용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 ① 선우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다.
 - ② 민규는 휴대폰 할부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다.
 - ③ 민정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
 - ④ 혜진이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해서 연체료를 물었다.
5. 민수는 오늘 한달 용돈을 받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
- ① “엄마 생일 선물 준비를 위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해야겠다.”
 - ② “이번 달에 필요한 것을 미리 적어봐야겠다.”
 - ③ “지난달에 썼던 용돈기입장을 살펴봐야겠다.”
 - ④ “다음달 용돈을 미리 받아서 상민이 생일선물을 사야겠다.”
6. 자전거를 사려고 할 때, 다음 중 어디에서 가장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
- ① 광고
 - ② 품질 및 가격 비교 사이트
 - ③ 대리점 직원
 - ④ 친구
7. 민규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수표와 신용카드
 - ② 신용카드와 사이버머니
 - ③ 수표와 사이버머니
 - ④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8. 다음 소득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직업으로부터 얻는 임금과 봉급
- ② 소유한 주식과 채권으로부터의 이자
- ③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
- ④ 가게를 운영해서 버는 돈

9. 다음은 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 ① 이자는 저축에 대한 대가이다.
- ② 돈을 빌리면 갚을 때까지 이자를 내야한다.
-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은 돈을 저축했을 때 이자율 보다 낮다.
- ④ 10만원을 예금하고 1년 후에 11만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만원이다.

10. 민주와 친구들이 저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옳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민규 : “난 이번 달 용돈 중에 만원을 미리 저축했어.”
선우 : “그랬다가 용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 나는 용돈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정 : “그럼 남는 돈이 없으면 저축을 못하는 거잖아. 저축은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 거야.”
예림 : “언제 저축해서 강아지를 사? 차라리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어때?”

- ① 민정, 예림 ② 민규, 민정 ③ 민규, 선우 ④ 선우, 예림

11. 다음은 부모님이 소득을 얻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민규: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으셔.”
- ② 예림: “우리 아빠는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으셔.”
- ③ 선우: “우리 아빠는 가게를 빌려주고 세를 받으셔.”
- ④ 민정: “우리 아빠는 경찰관으로 근무해서 봉급을 받으셔.”

1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

만원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다.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물건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이 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_____.

- 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②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③ 돈을 더 아껴 써야 한다.
- ④ 돈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13. 용돈기입장을 쓰면 좋은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다.
- ② 돈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쉽게 해준다.
- ③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소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4. 효리가 세뱃돈으로 받은 5만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다음 중 효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5만원어치 도서상품권을 사고 얻은 할인쿠폰
- ② 오빠한테 5만원을 빌려주고 반기로 한 이자
- ③ 은행예금 5만원에 대한 이자
- ④ 5만원 어치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

15. 물가가 3배 오를 때, 삼촌의 월급이 2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촌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

- ① 월급이 올라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 생활은 나아진다.
- ② 물가보다 월급이 더 적게 올라서 생활은 어려워진다.
- ③ 물가와 월급인상은 상관이 없다.
- ④ 삼촌생활은 전과 동일하다.

16. 다음 중 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내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다.
- ②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은행에서 돈을 더 잘 빌려준다.
- ③ 물건을 살 때, 신용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 ④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준다.

17. 금융기관이 하는 일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증권회사 - 주식을 사고팔도록 도와준다.
- ② 보험회사 - 개인이 내는 세금이나 카드대금을 받는다.
- ③ 은행 - 돈을 맡아주거나 빌려주는 일을 한다.
- ④ 우체국 - 우편 업무와 더불어 저축 업무를 한다.

18. 저축상품의 종류와 목적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그동안 모아둔 목돈을 금융기관에 저금해서 매달 이자를 받아쓰려고 한다. - 정기적금
 - ② 목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 보험
 - ③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 쓰려고 한다. - 보통예금
 - ④ 매달 조금씩 돈을 저금해서 나중에 목돈을 받으려고 한다.
19. 2,000원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을까 햄버거를 사 먹을까 망설이던 영희가 햄버거 대신 떡볶이를 사먹었다면 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같은 값이라면 떡볶이가 더 맛있기 때문이다.
 - ② 가격에 상관없이 떡볶이가 더 맛있기 때문이다.
 - ③ 맛에 상관없이 떡볶이 값이 더 싸기 때문이다.
 - ④ 맛에 상관없이 떡볶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 다음은 민화가 이번 달 용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 물건들입니다. 민화가 어떤 순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를까요? ()

사고 싶은 물건들: 헤어밴드, 손수건, 샤프펜슬, 스티커, 게임팩

- ㉠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본다.
- ㉢ 사고 싶은 물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
- ㉣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산다.

- ① ㉠-㉣-㉡-㉢
- ② ㉠-㉣-㉢-㉡
- ③ ㉢-㉣-㉠-㉡
- ④ ㉢-㉣-㉡-㉠

7. 만일 돈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투자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부동산
- ② 주식
- ③ 은행예금
- ④ 정기적금

8.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9. 학교나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10. 다음은 지출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한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					
돈을 쓸 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가장 적절한 가격의 물건을 찾을 때까지 사지 않는다.					
가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세일하기 때문에 살 때도 있다.					

11. 다음은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돈, 좋은 옷과 차, 집 등으로 성공여부를 판단한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곧 벌게 된다면 우선은 빌려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조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록 4>_ 청소년금융이해력 설문지(중학생/2007)

청소년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지

2007년 7월

주 관 : (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 원 : 금융감독원·매일경제신문

※ 다음은 여러분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알맞은 답변을 하나만 골라 써 주십시오.

1. 다음 중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 ① 민규는 가입하고자 하는 예금의 거래 약관을 읽어보았다.
 - ② 수빈이는 통장과 카드에 비밀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적어두었다.
 - ③ 민수는 이자계산방식이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 보았다.
 - ④ 민주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

2. 투자를 할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안전성: 투자한 원금이 손해가 나지 않을 가능성
 - ② 수익성: 일정 기간 투자한 결과 생기는 이익의 정도
 - ③ 환금성: 거래되는 시장에서 투자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
 - ④ 유동성: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3. 다음은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 중 나온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 ① 민규: 광고를 보니 기능이 다양하고 모양도 마음에 들어 사기로 결정했다.
 - ② 수빈: 비슷한 제품들을 비교하고 사용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본 후 샀다.
 - ③ 민수: 다른 제품에 비해 비용은 저렴한 반면 성능이 뛰어나서 사기로 결정했다.

- ④ 민주: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사기로 해놓은 제품인데 마침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해서 샀다.
4. 지금과 같이 은행의 이자율이 낮은 시대에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은행에 돈을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③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④ 은행 대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5. 다음 달에 대한 소비계획을 세울 때 다음 중 어떤 것에 기초해서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 ① 성적이 오르면 받기로 한 용돈
 ② 다음 달에 받게 되는 용돈
 ③ 미리 저축해 놓은 은행적금
 ④ 다음 달에 받게 되는 용돈과 미리 저축해 놓은 은행적금
6. 다음은 민규가 사려고 하는 상품목록과 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돈이 5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살 수가 없어 몇 가지만 골라서 사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

번호	상품명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	가격(원)
1	여름슬리퍼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이뻐서	20,000
2	액세서리	엄마의 생신선물	25,000
3	참고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10,000
4	책가방	교복 색깔과 어울리지 않아서	15,000
5	휴대폰 장식	친구들이 모두 있으니까	5,000
6	헤드셋	노래를 듣기 위해서	20,000
7	포스터 물감	미술시간 준비물인데 갖고 있는 물감을 다 써버려서	15,000

- ① 2, 3, 6 ② 2, 3, 7 ③ 2, 6, 7 ④ 1, 4, 6

7. 다음은 민규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로, 각각 2만원이 드는 일들입니다. 만일 2만원을 모아서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민규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 | | | |
|------------|------------------|-------|---------------|
| a) 놀이공원 가기 | b)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선물 | c) 저축 | d) 읽고 싶은 책 구매 |
|------------|------------------|-------|---------------|

- ① 놀이 공원에서의 즐거움
②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하지 못한 부담감
③ 저축을 했을 경우 생기는 이자
④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 돈

8. 다음은 신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휴대폰 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신용을 잃어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다.
② 내가 빚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야 된다.
③ 신용을 잃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취직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④ 세금은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 내도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월급이 작년에 비해 50%나 오르게 되었다면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물가도 월급과 같이 50% 오르면 작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② 물가도 월급과 같이 50% 오르더라도 생활수준은 작년에 비해 나아질

것이다.

- ③ 물가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른 만큼 생활수준은 좋아질 것이다.
- ④ 작년에 비해 생활수준이 50% 이상 나아질 것이다.

10.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현금을 지불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청소년도 발급이 가능한 카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 ① 직불카드
- ② 선불카드
- ③ 신용카드
- ④ 교통카드

11. 민규는 어려서부터 모은 돈 200만원을 복리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민규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원금(200만원)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

* 복리이자란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 지난 번 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① 연이자율이 20%라면 4년 반이 걸릴 것이다.
- ② 연이자율이 12%라면 6년이 걸릴 것이다.
- ③ 연이자율이 10%라면 10년이 걸릴 것이다.
- ④ 연이자율이 8%라면 12년이 걸릴 것이다.

12. 다음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보험이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저축방법이다.
- ② 가처분소득은 부모님이 버신 돈 중에서 물가만큼을 더한 돈이다.

- ③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이자율이다.
 - ④ 세후금리란 이자에 세금을 더한 이자율이다.
13.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금융기관마다 빌리는데 드는 비용은 같다.
 - ② 매달 갚아나가는 돈이 적을수록 비용은 커진다.
 - ③ 이자율이 낮을수록 비용은 커진다.
 - ④ 대출원금이 적을수록 비용은 커진다.
14. 다음 중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저축기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잡는다.
 - ② 단리상품보다는 복리상품을 활용한다.
 - ③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 ④ 매달 이자가 붙는 상품보다는 매년 이자가 붙는 상품을 선택한다.
15. 다음 중 신용을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경우
 - ② 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 ③ 컴퓨터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 ④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16.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기로 함.

- ②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들기로 함.
 - ③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함.
 - ④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함.
17. 예산을 미리 세우는 습관은 돈 관리의 기본입니다.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예산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② 예산을 세울 때는 신용을 포함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재정자원을 고려하여 지출을 결정한다.
 - ③ 예산을 세울 때는 소비지출액에 앞서 저축액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좋다.
 - ④ 예산을 세울 때는 저축과 소비지출의 합이 소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18. 수진이는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다음 중 수진이가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
- ① 보험회사
 - ② 은행
 - ③ 자산운용회사
 - ④ 새마을금고
19. 물가가 내리지는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돈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진다.
 - ②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거나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 ③ 월급을 받는 직장인처럼 매달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 ④ 부동산보다 저축이나 예금 등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린다.
20.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디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 ① 금융감독원
 - ② 예금보험공사
 - ③ 보험업협회
 - ④ 전국은행연합회
21. 다음 중 신용카드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② 돈을 아껴서 쓸 수 있게 해준다.
 - ③ 당장 돈이 없어도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해준다.
 - ④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2. 민규의 월급이 중학교 동창생인 수빈이에 비해 더 많다고 할 때, 다음 중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민규의 교육수준이 더 높구나.'
 - ② '수빈이에 비해 민규 직업이 더 전문적인가 보지?'
 - ③ '민규는 무슨 자격증이 있나?'
 - ④ '민규의 성격이 수빈이보다 좋은가 보지?'
23. 다음 중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저축 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보통예금
- ② 정기예금
- ③ 정기적금
- ④ 적립식펀드

24. 다음 중에서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

- ①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 ②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③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다.
- ④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5. 다음은 소득의 원천과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짝지은 것입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민규의 건강한 육체 - 근로소득
- ② 수빈의 샌드위치 가게 - 사업소득
- ③ 민주의 높은 신용도 - 재산소득
- ④ 정부의 생계비 보조 - 이전소득(어떤 형태의 노동도 하지 않았지만 받는 소득)

<부록 5>_ 금융교육 실태 설문조사

금융교육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재정책과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금융지식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금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합리적인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지의 결과는 앞으로 금융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대봉

※ 금융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신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휴대폰 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신용을 잃어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 ② 내가 빚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 ③ 신용을 잃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심지어 취직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 ④ 세금은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 내도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다음 중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어느 것입니까?

- ① 저축기간을 되도록 길게 잡는다.
- ② 단리상품보다는 복리상품을 활용한다.
- ③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 ④ 매달 이자가 붙는 상품보다는 매년 이자가 붙는 상품을 선택한다.

3. 다음 중 20~35세 연령대 사람들의 주요 소득 원천은 무엇입니까?

- ① 사업소득
- ②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 ③ 임대소득
- ④ 급여나 임금

4. 다음 중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은퇴소득은 무엇입니까?

- ① 고용보험금
- ② 퇴직연금
- ③ 산재보험금
- ④ 개인연금

5. 귀하 스스로의 금융지식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점 만점)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6. 귀하의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금융정보를 얻으십니까?

- ①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② 스스로(책이나 방송을 통해)
 ③ 금융전문가에게서 ④ 학교에서
 ⑤ 배우자에게서 ⑥ 친구에게서
 ⑦ 직장동료 또는 동업자에게서 ⑧ 기타()

7.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정보나 학습 등을 통해 금융문제에 대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금융교육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 ◆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자가 금융관련 개념이나 금융상품(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다.

8. 귀하께서는 금융교육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알고 있지 못했다.

9. 귀하께서는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9-1 문항으로) ② 없다.(9-2 문항으로)

9-1. 귀하께서는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한 후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2. 귀하께서 경제·금융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② 교육 활동에 대한 시간 부족
③ 수강료 등의 경제적 부담
④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⑤ 교육 장소와의 거리
⑥ 기타()

10. 다음의 기관들 중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금융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경향신문 ②금융감독원 ③금융교육시범학교 ④매일경제신문
- ⑤미래에셋 ⑥비씨카드 ⑦씨티은행 ⑧아이빛연구소
- ⑨YMCA ⑩전경련 ⑪한국은행 ⑫JA Korea
- ⑬한국경제신문 ⑭KB국민은행 ⑮하나은행 ⑯한국거래소
- ⑰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⑱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⑲기타()

11. 귀하께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체제의 운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3.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② 금융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 ③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 ④ 국가적인 금융교육 체제 확립
- ⑤ 기타()

※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14. 귀하께서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 기간 ② 교육 비용 ③ 교육 시설 및 장소
 ④ 교육 내용 ⑤ 교육 방법 ⑥ 교육 강사
 ⑦ 기타()

15.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1달 기준)

- ① 무료 ② 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만원 이상

16.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② 직장 내 사내교육
 ③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④ 금융교육 전문기관
 ⑤ 기타()

17.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주체는 어떤 기관입니까?

- 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②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KB 국민은행 등)
 ③ 사회기관 및 언론기관(전국경제인연합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④ 교육기관(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등)
 ⑤ 민간기관(아이빛연구소, JA Korea 등)
 ⑥ 기타()

18.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내용을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 ___ 소득 이해(소득의 원천, 소득에 따른 세금액 변화 등)
- ___ 재무관리 이해(인플레이션과 소득수준의 변화 등)
- ___ 저축과 투자 이해(장기투자와 수익률 비교 등)
- ___ 지출과 부채 이해(신용정보제도 이해, 대출기관과 이자비용 등)
- ___ 은퇴자금 계획 및 운용
- ___ 기타()

19.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내용 설명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강사 강연 및 토론
- ② 교재 강독
- ③ 모의 상황(시뮬레이션) 참여
- ④ 동영상 활용 강의
- ⑤ 만화, 게임 등의 참여형 학습
- ⑥ 기타()

20. 금융교육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금융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1회적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
- ② 일정기간, 정기적인 교육과정 참여
- ③ 단기간의 캠프 참여
- ④ 브로슈어나 팸플릿, 출판물 활용
- ⑤ 인터넷 활용
- ⑥ 기타()

21. 우리나라에서 금융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 ② 직장인
- ③ 은퇴자
- ④ 특정계층(주부나 군인 등)
- ⑤ 취약계층(저소득계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 ⑥ 기타()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2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연구직 및 전문직 ② 자영업 ③ 서비스업
 - ④ 생산 및 제조업 ⑤ 행정 및 사무직 ⑥ 군인
 -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
- (구직자및은퇴자포함)

2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 ③ 대학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6.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 ③ 300-450만원
④ 450-600만원 ⑤ 600만원 이상

27.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 시/군/구 동/리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경제교육협의회(2007).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 구본성(2007).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제15호, 3~9쪽, 한국금융연구원.
- 구정한(2007). 「OECD에서의 연금관련 금융교육에 대한 논의와 해외사례」,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제22호, 12~13쪽,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감독원(200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실시」, 2006. 10. 30, 보도자료.
- _____ (2008). 「전국 22개 초·중·고를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2008. 4. 1, 보도자료.
- _____ (2009). 「금융권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2009. 10. 21, 보도자료.
- _____ (2009). 「다문화 가정주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융특강 추진」, 2009. 9. 14, 보도자료.
- _____ (2009). 「소비자단체 상담직원을 위한 금융교육 추진 개최」, 2009. 4. 23, 보도자료.
- _____ (2009). 「실업자·농어촌 주민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2009. 4. 10, 보도자료.
- _____ (2009). 「2009년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결과」, 2009. 9. 25, 보도자료.
- _____ (2009). 「'09 상반기 중 금융교육 추진현황」, 2009. 7. 8,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2009). 「2009년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결과」.
- 기획재정부-KDI경제정보센터(2008).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

나?」.

- 김근영 외(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기(2002). 「미국 등의 경제교육 시스템」, 『Review 2002』, 169~194쪽, 금융감독원.
- 노동식(2009). 「금융위기와 금융교육의 중요성」, 『주간 금융브리프』, 제18권 제17호, 3~7쪽, 한국금융연구원.
- 문승래·정석민(2009).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청소년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세미나 발표집, 한국경제학회·한국경제교육학회·KDI.
- 민주홍 외(2007). 「2007년도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사업(청소년 금융지식 제고체제 구현 방안)」.
- 박상선(2005). 「국민 경제교육 강화의 필요성」, 『경제교육』, 제12권 제2호, 36~49쪽, KDI경제정보센터.
- 박 철(2003). 「선진국의 청소년 금융교육 실태 및 시사점」, 『금융』, 제590호, 86~92쪽, 전국은행연합회.
- _____ (2003). 「금융기관과 청소년 금융교육」, 『금융』, 제592호, 76~85쪽, 전국은행연합회
- 서병호(2008). 「금융교육 필요성과 강화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7권 제20호, 8~9쪽, 한국금융연구원.
- 이남철 외(2009).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고급인력 유치 전략 연구- 금융 및 물류 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성엽(2006). 「호주 직업교육 정책의 동향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인력개발연구』, 제8권 제1호, 25~46쪽, 한국인력개발학회.
-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교총(2008).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 연구』.
- 조영석 외(2009). 「청소년 금융이해력 실태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고등

- 학생을 중심으로-」,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기업경영학회.
- _____ (2008). 「금융경제교육의 방향성 탐색」,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기업경영학회.
- 천규승(2009).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내실화」, “청소년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세미나 발표집, 한국경제학회·한국경제교육학회·KDI.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6).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 _____ (2007).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 _____ (2008).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 한국금융연구원(2008). 「최근 주요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보완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제17권 제31호, 20~21쪽.
- 한국은행(2009). 『2009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험연수원 홈페이지(www.in.or.kr).
- 스코트캐쉬 홈페이지(www.scotcash.net).
- 씨티그룹 금융교육 홈페이지(financialeducation.citigroup.com).
- 유럽 금융자격검정기구 홈페이지(www.eficert.eu).
- 유럽위원회(EC) 돌체타 프로그램 홈페이지(www.dolceta.eu).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fq.or.kr).
-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www.education.gouv.fr).
- 프랑스 보험기업연맹 홈페이지(www.ffsa.fr).
- 프랑스 상호보험기업단체 홈페이지(www.gema.fr).
- 프랑스 전국퇴직공무원저축협회 홈페이지(www.epargneretraite.org).
- 프랑스 주식학교 홈페이지(www.ecolebourse.com).
- 프랑스 퇴직자 공익단체 정보 홈페이지(www.info-retraite.fr).
-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실 홈페이지(s.hankyung.com/economy).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www.kbi.or.kr).

호주커먼웰스은행금융교육사이트(www.dollarsandsense.com.au).

Angel Gurría(2009). The OECD project on Financial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Financial Education, IEFP-OECD Symposium on Financial Education.

JA Korea 홈페이지(www.jakorea.org).

NFCC(2009). The 2009 Consumer Financial Literacy Survey Topline Report and Data Sheet.

OECD 홈페이지(www.oecd.org)내 국제금융교육게이트웨이(IGFE).

OECD 금융교육 홈페이지(www.financial-education.org).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www.ycredit.org).

▣ 저자 약력

- 이남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전현중
 - 동서대학교 교수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장희
 -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교수실장

금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09년 11월 29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권 대 봉 |
|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 · 인 쇄 처 | (주)신전 (02)2264-7727 |
|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978-89-6355-077-0 9337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6,000원>